

# 절대권력자 김정은은 왜 자주 우는가?: 고립된 존재의 실존적 위기와 감정의 동학

김윤희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연구원

본 연구는 언론이 주목하고 소비하면서도 학계가 외면하거나 독립적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지 않았던 김정은의 눈물을 독립적 통치기호로 재정의한다. 이를 통해 그의 실존적 위기와 공동체의 구조적 고통을 통합적으로 규명한다. 한 방울의 물에 온 우주가 비끼듯, 연구자는 김정은의 눈물에서 '고독한 자아(Solitary Self)'와 '압살(壓殺)'의 메커니즘을 발견한다. 김정은의 눈물을 정치적 연출이나 나르시시즘이 아니라, 고독과 위기의 임계점에서 터져 나온 실존적 징후로 해석하며, 이를 분석하기 위한 틀로 '고독한 자아' 개념을 도출하였다. 나아가 김정은의 고독과 눈물, 그에 공명하는 인민의 눈물을 관통하는 구조적 폭력의 본질을 '압살'로 정의하였다.

김정은의 '고독한 자아'는 다음과 같은 요인으로 형성되었다. 첫째, 은폐된 출생과 또래 관계 부재는 정서적 유대의 결핍과 사회화의 기형성을 초래했다. 둘째, 모계 혈통의 취약성과 '김일성이 알지 못한 존재'라는 정통성의 결여는 백두혈통 세습체제의 구조적 한계를 각인시켰으며, 이는 강박적 권위 추구로 이어졌다. 셋째, 수령독재 시스템의 신격화 과정은 인간 김정은을 독재자 김정은으로 치환하고 인격을 소외시켰다. 넷째, 숙청을 통한 인적 유대의 파괴는 역설적으로 가족을 유일한 정서적 안식처로 만들었고, 가족정치 메커니즘으로 작동했다. 다섯째, 국제적 제재와 고립으로 국가와 인민의 생존기반이 동시발적으로 와해되면서 공동체는 압살 상태에 직면했다. '압살'은 국제적 제재와 고립이라는 외부 압살(말려 죽이기)과 감시·통제·억압·공포라는 내부 압살(눌러 죽이기)이 분단체제 안에서 동시에 작동하며 공동체를 총체적 고사(枯死) 상태로 몰아넣는 구조적 폭력이다. 이러한 이중의 압살 구조는 김정은의 고독을 심화시키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김정은의 눈물은 이처럼 복합적으로 형성된 고독이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 분출되는 인간성의 표출이자, 김일성 시대의 보편적 배급기능을 상실한 체제가 인민과 감응하는 새로운 통치 메커니즘이다. 공식 석상에서 지도자가 쏟아내는 눈물은 즉시 집단의 통곡이 되어 공동체가 공유하는 통증의 공명으로 이어지며, 이를 통해 국제적 고립과 체제의 억압 속에서 개인의 고통은 국가적 서사로 승화된다. 그런 의미에서 지도자의 눈물은 인민이 견뎌온 가혹한 생존의 시간에 부여되는 성스러운 인장이자, 공동체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받는 집단적 제의의 정점으로 작동한다. 이러한 눈물의 공명은 파산한 이념을 대신해 체제를 유지하는 정서적 에너지이자, 체제의 물리적 한계를 심리적 연대로 메우는 북한 특유의 비극적 복원 기제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독재자를 단죄가 아닌 이해의 대상으로 접근한다. 신격화로 인해 인간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었던 김정은의 모순은 시스템이 한 인간을 파괴하는 메커니즘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권력은 인간을 어떻게 소외시키는가?'라는 질문에 해답을 제시한다.

**주제어** 고독한 자아, 압살, 고립, 분단, 수령독재, 숙청, 눈물, 감성정치

## I. 체제 정동의 리트머스: 김정은의 눈물

### 1. 문제의식: '이례적으로 잘 우는 독재자'

2026년 1월 초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의 강제 체포는 독재정권 종말에 대한 명백한 신호로 해석된다. 마두로 사건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질서를 더욱 심화시킨 사례로, 강대국 간 갈등의 일선에 있는 한반도에 직접적 파장을 미치는 사건이었다.<sup>1</sup> 북한은 이 사건 직후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훈련을 공개하며, '미제국주의에 당하지 않으려면 강력한 핵 억제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과거 카다피나 후세인처럼 핵을 포기하거나 갖지 못한 지도자의 최후를 목격한 김정은이 핵 보유 의지를 더욱 굳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핵을 보유한 북한의 경우, 지도자의 자아 상태가 한반도와 국제 정세를 좌우하는 결정적 변수가 된다. 특히 외부의 물리적 위협이 지도자의 공포와 결합할 때, 공세적 방어차원의 군사도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은 배가된다. 과거 히틀러가 유년기의 학대와 사회적 좌절에서 기인한 열등감을 '게르만 우월주의'라는 배타적 광기로 전환하여 홀로코스트를 자행했듯, 민주적 정당성을 결여한 지도자의 내면적 취약성은 극단적 행동의 심리적 동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김정은의 눈물은 절대권력 이면에 숨겨진 심리적 불안과 체제 위기를 판별하는 리트머스다. 역사적으로 독재자들은 강인함과 절대적 카리스마를 통해 권위를 구축했다. 스탈린과 마오쩌둥은 공적 장소에서 감정을 통제했으며, 히틀러 또한 격정적인 연설에도 불구하고 눈물은 보이지 않았다. 인간적 면모를 부각하기 위해 '눈물이 많으신 분'으로 찬양되는<sup>2</sup> 김일성과 김정일

<sup>1</sup> 신동아, 2026. 1. 27., "마두로 체포로 무너진 국제질서, 한반도가 위험하다", <https://shindonga.com/inter/article/all/13/6076726/1>(검색일: 2026. 1. 29.).

<sup>2</sup> 김일성의 눈물 흘리는 장면은 공식적으로 노출되지 않았지만, 북한의 기록영화를 통해 동지애의 화신임을 부각하는 선전용으로 가끔 활용되었다. 김정일 역시 사적인 자리에서는 감성이 풍부하고 눈물이 많은 인물로 알려져 있다. "... 이야기를 하면서도 눈물을 툭툭 흘리기도 해요. 그럴 때면 옆

역시 공식 석상에서는 눈물을 절제했다. 21세기 국제정치 무대에서 김정은은 전통적 독재자들과 다른 극단적 모순을 드러낸다. 그는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국제적 긴장을 조성하는 ‘로켓맨(Rocket Man)’, 권력 강화를 위해 무자비한 숙청을 단행하는 잔인한 독재자로 각인되어 있다. 그러나 그는 대중 앞에서 빈번히 눈물을 흘린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김정은을 ‘이례적으로 잘 우는 독재자’<sup>3</sup>로 명명하며 그 눈물의 정치적 함의에 주목하고 있다. 학계와 언론은 김정은의 눈물을 지도자의 폭력성을 희석하기 위한 악어의 눈물, 나르시시즘, 혹은 기획된 정치적 수사로 격하해 왔다. 이러한 평가는 행위자의 내면과 구조적 환경이 교차하며 발생하는 정동의 본질을 간과한 피상적 해석이거나, 지적 게으름의 소산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김정은은 집권 초기부터 현재까지 최고 존엄의 권위 훼손을 감수하며 눈물 흘리기를 반복했다. 만약 이 눈물이 기획된 연기라면,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긴 시간 동안 일관된 정서적 연기를 수행해 온 셈이며, 그 사실 자체가 이미 학술적 탐구의 대상이다.

왜 절대권력자는 공개 석상에서 나약함을 드러내는가? 우리는 왜 김정은이 독재자 이전에 보편적 인간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것일까? 그동안 김정은을 인간적 실존으로 파악하려는 시도가 부재했던 이유는 그가 행사하는 절대적 권위가 개별적 자아를 압도하여 체제 속에 함몰시켰기 때문이다. 김정은은 체제 그 자체로 등치(等値)되었으며, 그와 북한 체제를 분리하여 인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본 연구는 김정은을 독재자라는 도식에서 벗어나 한 명의 인간으로 소환하여 그의 내면을 고찰하고자 한다. 타자의 인간성을 직시할 때 비로소 현상의 본질

에 있는 부하들이 아부를 하려는 마음에서 서로 손수건을 꺼내 그의 눈물을 닦아주려고 경쟁을 합니다.” 후지모토 겐지, 2010, p. 237.

<sup>3</sup> 미국의 경제 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피지배자 앞에서 눈물을 보인 것으로 알려진 독재자는 거의 없으며, 민주주의국가의 지도자들에게도 주민들 앞에서 우는 것은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할 만한 드문 순간이라고 평가하였다. Shoaib, A. 2023, December 5.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Un wept as he pleaded with women to have more babies to stop the country’s falling birth rate. Business Insider.” <https://www.businessinsider.com/kim-jong-un-weeps-as-he-pleads-north-korean-women-to-have-more-babies-2023-12>(검색일: 2025. 12. 29.).

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정은의 눈물을 매개로, 체제가 주체에게 가하는 폭력성과 그 폭력의 집행자이자 희생자로 존재하는 한 인간의 왜곡된 내면을 추적한다.

## 2. 연구 목적과 질문: 권력은 인간을 어떻게 소외시키는가?

본 연구는 김정은의 눈물을 국제적 제재와 고립, 경제적 파산으로 폐쇄 국가 지도자가 직면한 실존적 위기의 신체적 기호로 정의한다. 연구의 목적은 수령독재 시스템이 한 인간을 신격화하고 독재자로 치환(置換)하는 과정, 그 속에서 분열된 자아가 눈물로 분출되어 인민과 공명하는 감정의 동학을 규명하는 것이다. 핵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김정은의 자아를 형성한 생애사적 연원은 무엇인가?

둘째, 수령독재 시스템은 어떻게 후계자에게 신성을 강제하고 인성을 거세하는가?

셋째, 분단과 국제 제재는 김정은의 고립을 어떻게 구조화하는가?

넷째, 극단적 고립 속에서 가족은 김정은에게 어떤 의미인가?

다섯째, 김정은의 눈물은 인민의 억압된 감정과 어떻게 공명하는가?

## 3. 해석적 패러다임의 전환

### 1) 독재자에서 인간으로

김정은의 눈물과 관련해서는 한 편의 연구가 있다. 김민관·허재영(2024)은 북한의 지도자가 무오류성이라는 전통적 권위를 탈피하여, 정책적 실패를 인민에 대한 지도자의 고뇌와 진정성으로 치환하는 정치적 계산을 분석하였다. 김정은의 오류 시인과 눈물을 ‘인정과 눈물의 리더십’이라는 새로운 통치 방식으로 정의하고 북한의 통치 기제가 감성적 차원에서 고도화되고 있음을 포착했다. 김정은의 눈물이라는 행위적 특성에 학술적 초점을 맞추어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선구적 의의를 지닌다. 그럼에도 전통적 분석 도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한계가 있다. 김정은의 눈물을 감성정치의 일환이나 리더십의 단편적 사례로 조

명하다 보니, 눈물이 지닌 서사적 힘과 정치적 상징성을 별도의 분석 단위로 설정하여 심도 있게 다루지 못한 측면이 있다. 특히 눈물의 기저 맥락이 북한 특유의 억압적 구조와 결합할 때 발생하는 복합성에 대해 향후 보완적 고찰이 필요해 보인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세 가지 차원에서 논의를 전개한다.

첫째, 김정은의 특수한 성장배경과 절대권력의 정점에서 직면한 고독에 주목하고, 누적된 고립감이 신체적 임계점에 도달하여 터져 나온 결과가 곧 눈물임을 규명한다.

둘째, 김정은의 눈물을 하나의 독립적인 통치기호로 상정하여 분석한다. 과거 지도자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이례적 행위인 만큼, 독재와 악이라는 프레임에서 탈피하여 극한의 고립과 위기 상태의 한 인간으로 재조명하고자 한다.

셋째, 김정은의 눈물은 신비주의와 초인적 권위에 기반했던 선대의 통치와 달리, 지도자의 인간적 취약성(Vulnerability)을 매개로 인민과 정서적 접점을 형성한다. 이러한 나약함의 공유가 기존의 권위적 복종 관계를 어떻게 질적으로 변화시키는지 규명한다.

## 2) 경계 없는 시선: 학제 간 접근의 필요성

김정은의 눈물이라는 정동 현상은 정치학의 구조적 담론으로 포착되지 않는 실존적 깊이를 지니며, 심리학의 개별적 분석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체제적 강제성을 내포한다. 정치학은 숙청과 권력 공고화의 메커니즘을 설명할 수 있으나, 왜 절대권력자가 공개 석상에서 반복적으로 눈물을 흘리는지 해명하지 못한다. 심리학은 고립된 개인의 내면적 고통을 이해할 수 있으나, 그 고통을 생산하는 수령독재 시스템이라는 구조적 맥락을 놓친다. 사회학은 사회화과정과 자아 형성을 분석할 수 있으나, 눈물과 의례가 지닌 문화적 상징성은 간과한다. 인류학은 권력 문화의 상징체계를 해석할 수 있으나, 분단체제라는 역사적·정치적 조건을 충분히 다루지 못한다. 한편, 정치학의 구조적 담론이 포착하지 못하는 지도자의 실존적 고독과 사회심리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전방위적 압살의 메커니즘은 문화인류학적 ‘세밀한 기술’을 통해 하나의 유기적인 통치 동학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역사학, 사회학, 정치학, 문화인류학, 사회심리, 철학적 사유를 가로지르는 다학제적 접근 즉, 경계 없는 시선을 채택한다. 단일 학문은 그림자의 한 조각만을 비출 뿐이며, 다학제적 조명(照明)을 비출 때 권력이 인간을 파괴하고 재구성하는 전 과정이 드러날 수 있다. 이는 방법론적 절충이 아니라, 독재자이면서 인간 김정은이라는 존재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한 필연적 선택이다. 이 시선은 북한이라는 폐쇄적 공간이 생산하는 낯것의 언어와 그 이면에 은폐된 정동의 실제 복원을 향한다.

본 연구는 독재자의 내면에 ‘고독한 자아’를 형성하는 동인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그것이 눈물이라는 정동적 기표를 통해 새로운 통치 양상으로 변모하는 과정을 규명함으로써, 아시아적 권위주의체제의 특수성과 보편적 인간의 실존적 위기를 동시에 조명하고자 한다.

#### 4. 이론적 기여: 개념적 재구성과 분석 틀의 구축

##### 1) ‘고독한 자아(Solitary Self)’

절대권력자가 집권한 이후 십수 년간 공개 석상에서 반복적으로 우는 현상은 기존 독재자 연구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김정은을 둘러싼 환경은 거시·미시·심리적 동인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군사적 정전상태의 분단체제, 이로 인해 초래되는 국제적 제재와 고립, 그 속에서 형성된 적대적 세계관, 3대 세습과 그것이 수반하는 왜곡된 사회성은 기존의 권위주의 이론이나 카리스마론, 독재자 심리학으로 온전히 설명하기 어렵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이론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고독한 자아’라는 분석 개념을 제시한다. 이는 자아 발견과 창조성, 자유를 지향하는 실존주의 철학의 자발적 고독과 구별된다. 니체의 초인이나 실존주의적 고독이 자아실현의 긍정적 승화 과정이라면, 김정은의 ‘고독한 자아’는 시스템이 강제하는 필연적 외로움이자 구조적 고립이다. 즉, 독특한 정치·구조적 환경이 빚어낸 사회적 자아의 고립적 형태를 의미한다. ‘고독한 자아’는 수령독재 시스템이 한 인간을 신격화하고 독재자로 치환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타자와의 관계 단절, 정서적 유폐, 실존적 고립의 총체를 포착하는 개념이다.

조지 허버트 미드(G. H. Mead)의 관점에서 자아는 주체적 자아(I)와 사회적 자아(Me)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으로 형성된다. 그러나 수령독재 시스템에서 인간 김정은의 자아는 무결점의 수령이라는 신화적 요구에 압도된다. 이로 인해 주체적 자아는 사회적 자아와 통합되지 못한 채 유리되며, 이 간극에서 발생하는 공허함이 본 연구가 정의하는 ‘고독한 자아’의 본질이다. 즉 사회적 자아(Me)가 요구하는 신경화된 수령의 역할이 주체적 자아(I)의 실존적 고통을 더 이상 억제하지 못할 때, 그 임계점에서 발생하는 파열음이 바로 김정은의 눈물이다.

본 연구가 추적하는 것은 절대권력이 인간성을 어떻게 잠식하는지, 강제된 고립이 한 존재를 어떻게 분열시키는지, 부여된 역할이 본래의 자아를 어떻게 소외시키는지, 그 모든 상실의 정점에서 ‘나 역시 한 인간’임을 눈물로 웅변할 수밖에 없는 고독한 존재의 서사이다. 본 연구는 일반화를 목표로 하지 않으며, 김정은이라는 절대권력자의 극단적 사례를 통해 권력이 생산하는 고독의 메커니즘을 심층 탐구한다. 3대 세습, 핵 보유, 국제 제재와 고립, 분단체제가 결합된 이러한 조건은 역사상 유례가 없으며, 이 독특성 자체가 심층사례 연구를 요구한다.

김정은의 ‘고독한 자아’를 분석하는 틀은 다음과 같다.

① 관계적 빈곤: 자아를 지탱하는 기초적인 토대는 공유된 기억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또래 집단과의 수평적 유대이다. 김정은은 이러한 관계가 원천봉쇄된 채, 어린 시절부터 자신을 왕으로 모시는 가신(家臣) 그룹에 둘러싸여 성장했다. 그 빈곤한 자리에는 비대해진 권위가 들어섰다.

② 정통성의 결핍: 은폐된 출생 배경은 지도자의 공적 지위와 충돌하며 심리적 불안을 야기한다. 정통성의 결핍을 메우기 위한 과도한 상징조작과 프로파간다는 그 이면에 숨겨진 자아의 허약성을 드러내는 역설적 증거가 된다.

③ 시스템에 의한 자아의 파편화: 수령독재 시스템은 지도자에게 절대적 신성을 강제하는 대가로 인성을 거세한다. 그가 자행하는 숙청과 폭력은 권력 유지를 위한 수단인 동시에, 수령독재 시스템이 부과한 지도자 역할을 완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연적 결과이다. 결국, 신경화된 역할(Me)과 실존적 자아(I)의 괴리는 자아의 파편화로 이어진다.

④ 가족으로의 인간적 귀환: 권력 공고화를 위한 엘리트 숙청은 지도자의 인

간적 공간을 소거하고 소통의 주체를 복종의 객체로 전락시켜 심리적 고립을 심화시킨다. 이 고립 속에서 가족은 수령이 아닌 인간으로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정서적 안식처가 된다. 이철주와 김주애의 등장은 신격화된 우상을 보편적 인간으로 전환하며, 독재자의 폭력성을 희석하고 인민과의 친밀감을 형성한다. 결국, ‘수령(父)-국모(母)-미래세대(子)’의 가족 모델은 인민을 혈연적 운명공동체로 묶는 가족국가의 서사를 구체화한다.

⑤ 분단이 강요한 고립과 공포: 분단체제는 대내적으로 남한이라는 대안 체제에 의한 통치 기반 소멸 위협을, 대외적으로는 미국과의 적대적 대결 구도에서 발생하는 공포와 긴장을 일상화한다. 결과적으로 내부 구성원들의 체제 이탈과 외부의 군사적 압박이 맞물리며 지도자를 그 누구도 신뢰할 수 없는 구조적 고립과 만성적 공포 속에 가둔다.

⑥ 압살과 눈물의 공명: 국제적 제재와 고립으로 국가와 인민의 생존기반이 동시다발적으로 와해되는 압살 상태는 김정은과 북한 공동체를 실존적 위기로 내몬다. 경제적 질식 상태, 그리고 통치 이상과 현실 간 괴리에서 오는 무력감은 눈물이라는 감정적 기표로 치환된다. 지도자의 눈물은 인민이 처한 고난을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는 희생적 지도자상을 투영하며, 인민의 고통과 곁핍을 집단적 서사로 전환하는 강력한 촉매제가 된다. 이는 인민을 정서적 운명공동체로 결속시키는 통치 기제로 작동한다.

## 2) 압살(壓殺), 질식의 구조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와 봉쇄를 ‘선전포고 없는 전쟁’, ‘총포성이 울리지 않는 세계적인 대전’으로 명명하고, 체제의 생존기반을 계단식으로 파괴하는 ‘압살’로 규정한다. 노동신문(2000/10/3)이 서술하는 ‘압살’의 특징과 양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총체적 고립과 장기적 봉쇄다. ‘레닌그라드 봉쇄보다 훨씬 더 길고 잔인하며’, ‘온 나라가 통째로 적의 포위환에 든 고립무원 상태’이다.

둘째, 생존기반에 대한 외과식 수술타격이다. 전력이 끊기고 공장이 멈춰 서며, 식량이 고갈되는 등 ‘보이지 않는 총알과 폭탄’이 ‘치밀하게 그어진 화살표에 따라 생존수단을 소리없이 파괴하며’ 생명줄을 조인다.

셋째, 전체 인민이 전방위적으로 겪어야 하는 고통이다. 굶주리고, 헐벗고, 추위에 떨면서 인민은 극한의 육체적·정신적 고통 속에 신음한다. 즉, ‘민족이 완전히 괴멸해 버릴 수 있는 최악의 상태’이다.

이처럼 북한에게 국제 제재는 경제제재가 아니라 체제 괴멸을 목표로 한 ‘제국주의 연합세력의 고립 압살 책동’으로 인식된다. 1990년대부터 시작된 제재는 수십 년간 지속되어 왔으며,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역사상 최고 수준으로 강화되면서 사실상 생명이 끊기는 전방위적 제재 상태에 놓였다. 2016~2017년 유엔 안보리의 포괄적 대북제재로 북한은 90% 이상의 수출품목이 금지되고 주요 은행들이 국제금융망(SWIFT)에서 퇴출되면서 공식 무역 활동이 사실상 제로가 되었으며, 생산·수출·결제의 모든 통로가 차단되어 국가 운영에 치명적 타격을 입었다(류현우, 2025: 159).

본 연구는 북한의 대외용어인 ‘압살’을 분석 틀로 수용하되, 이를 국제적 제재와 고립이라는 외부 압살(말려 죽이기)과 감시·통제·억압·공포라는 내부 압살(눌러 죽이기)의 이중 구조로 재정의한다. ‘압살’은 김정은과 인민이 처한 상태를 불가분(不可分)의 실존적 위기로 규정하고 눈물의 필연적 분출 과정을 구조적으로 해명하는 개념이다. 이는 외부 제재와 내부 통제를 별개로 다뤘던 기존의 분절적 접근에서 벗어나 하나의 유기적 메커니즘으로 통합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화되는 분석적 패러다임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통증, 눈물, ‘말려 죽이기’, ‘눌러 죽이기’와 같은 실존적 언어를 분석의 중심부로 끌어올림으로써, 북한 공동체를 단순한 관찰 대상이 아닌 구조적 폭력으로 고통받는 생명체로 재정립하고자 한다.

## 5. 분석 방법과 자료

### 1) 해석적 문화기술지: 일상적 텍스트의 구성과 복원

김정은의 눈물에 내재된 함의는 실증적 관찰이나 현상기록이 아닌, 행위의 맥락을 짚어내는 해석학적 통찰을 통해 규명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클리어드 기어츠(Clifford Geertz)의 ‘세밀한 기술’ 원칙에 바탕을 둔 문화기술지(Ethnographic) 방법을 적용한다. 클리어드 기어츠(1973)는 문화기술지에서 ‘얇은 기술(thin description)’

과 ‘세밀한 기술(thick description)’을 구분하며, 후자는 소수 정보제공자의 심층 서사를 통해 문화적 맥락과 의미를 재구성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이러한 방법은 지도자의 개별적 행위를 파편화된 사실로 보지 않고, 북한 특유의 문화 체계와 지도자의 생애사적 맥락 안에서 그 심층적 의미를 재구성하는 데 유용하다. 문화기술지는 본질에 있어 해석적 기술이며, 역동적인 담론 속에서 휘발되는 행위자의 발화와 사건을 기록의 형태로 고정(fixing)함으로써 그 이면의 의미 체계를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스테판 티처 외, 2015: 145).

문화기술지는 연구자가 대상의 일상에 침투하는 현지 조사를 원칙으로 하나, 북한 권력 핵심부라는 폐쇄성 때문에 직접적 접근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김정은 일가의 사적 공간을 공유하며 그들의 일상을 목도한 내부자 회고록을 비자발적 참여 관찰의 기록으로 간주하고 핵심 사료로 활용한다. 지금까지 북한이탈주민 증언록이나 회고록을 단순한 사실관계 규명의 수단으로 보던 전통적 관성에서 탈피하여 수령 신격화의 메커니즘과 그 균열 사이에서 포착되는 김정은의 가공되지 않은 인간적 실체를 분석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식 담론이 가공해낸 허구적 숭고미와 조작된 신격화의 장막을 걷어내기 위해, 날것의 언어가 지닌 해체적 힘에 주목한다. 나치 독일과 스탈린 연구가 지도자의 비속어와 욕설을 그대로 인용해 권력의 광기와 불안을 증명했듯, 본 연구 역시 지도자가 발화한 ‘이 새끼’, ‘입 냄새’, 그의 구체적 폭력행위를 드러내는 ‘뺨 때리기’와 같은 표현을 순화하지 않고 그대로 인용한다. 이러한 담론적 전략을 통해 체제가 정교하게 주조한 성스러운 도상(icon)과 실존적 자아 사이의 심층적 간극을 포착하고자 한다. ‘세밀한 기술’은 수령 신비주의의 장막 뒤에 은폐된 김정은의 실제 모습을 재구성하여, 그 내면에 잠재된 결핍과 소외가 ‘눈물의 정치’라는 독특한 통치 기제로 전이되는 과정을 규명하는 유효한 학술적 수단이 된다.

본 연구는 자료에 투영된 최고 지도자의 미시적 일상을 세밀하게 추적함으로써 북한 권력 문화의 상징체계와 의미 구조를 포착하고, 이를 해석학적 관점에서 복원하고자 한다.

## 2) 자료의 구성: 내부자 회고록과 공식 담론

본 연구는 개별 회고록의 주관성을 극복하기 위해 사실의 진위 규명보다는 증언들 사이에서 반복적으로 포착되는 정서적 패턴의 일치성에 집중한다. 이러한 교차 검증의 과정을 통해 주관적 회상 속에 침전된 권력의 질감을 학술적 분석이 가능한 공유된 실체(shared reality)로 변환한다.

후지모토 겐지(藤本健二)의 회고록은 가장 중요한 1차 사료이다. 그는 단순한 요리사가 아니라 김정일 가족의 은밀한 사적 공간을 공유하며, 어린 김정은의 놀이 상대이자 정서적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한 인물이다. 후지모토가 기록한 김정은의 청소년기 행동 패턴, 성격 형성 과정, 그리고 형제 관계는 수령 유일 지배의 권위주의 질서가 한 아이의 일상적 상호작용 속에서 어떻게 학습되고 내면화되는지를 보여주는 구체적이고 미시적인 근거가 되겠다.

성혜량과 이한영의 회고록은 김정일 가계에 대해 가장 내밀한 내부자의 시선을 제공한다. 성혜량은 김정일의 비공식적 배우자이며 김정남의 생모인 성혜림의 언니이자 김정남의 가정교사 역할을 수행했다. 이한영은 성혜량의 아들이자 김정남의 외사촌으로, 어머니 성혜량과 함께 김정일의 사적 공간에서 생활했던 인물이었다. 이들은 권력의 심장부에서 김정일과 소통했던 가족의 일원으로서, 김씨 일가의 은폐된 삶의 궤적과 가계 이면에 흐르는 긴장을 가감 없이 증언한다. 이들의 기록은 공적 신화 뒤에 숨겨진 가계의 취약성과 인간적 갈등을 포착해내는 결정적 사료가 된다.

류현우의 회고록은 또 다른 차원의 자료를 제공한다. 류현우는 17년간 처가 살이를 통해 장인 전일춘으로부터 직접 듣고 목격한 김씨 일가의 비화를 구체적으로 서술한다. 전일춘은 30여 년간 노동당 통치자금을 관리하는 금고지기로, 김정일과 김정은의 절대적 신임을 받았던 핵심 측근이다. 이 기록은 권력의 심장부에서 지도자가 측근들과 맺는 정서적 유대와 관계의 실상을 포착할 수 있는 귀중한 사료가 된다.

본 연구에서 류현우의 회고록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그것은 지도자의 일상적 행동 패턴과 정서 상태에 가장 근접한 유일무이한 기록이기 때문이다. 북한 최고 권력층의 내부 정보는 절대 비밀의 영역이며, 구조적으로 외부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희소성 자체가 학술적 가치를 높이며, 앞서 설명

한 문화기술지 방법론이 요구하는 ‘세밀한 기술’ 원칙과 부합한다. 그의 증언 중 상당 부분은 회고록 출판 이전에 언론 기사로 먼저 공개되었으나, 이 연구에서는 텍스트의 완결성과 맥락적 깊이를 확보하기 위해 회고록을 주 출처로 삼는다. 회고록은 언론 기사보다 서사적 맥락과 세부 정보가 풍부하여, 기술된 내용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에 용이하다. 최종적으로 류현우의 증언을 후지모토 겐지, 성혜량, 이한영의 회고록 및 북한 공식 담론과 교차 검증하여 반복 패턴을 확인함으로써 방법론적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내부자의 회고록과 북한 공식 매체가 생산한 텍스트 및 영상 자료를 병행 분석한다. 조선중앙TV의 보도 영상은 텍스트만으로 포착하기 어려운 비언어적 기표—음성의 떨림, 안면 표정, 미세한 손동작, 시선의 흐름—를 실증적으로 제공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비언어적 데이터를 체제 선전용 프로파간다로 일축하지 않는다. 지도자가 대중 앞에서 감정적 취약성을 노출하는 행위는 전통적 통치 서사가 고수해온 권위의 신비화와 무결점의 성역을 해체하고 그 자리에 ‘인간적 수렁’이라는 새로운 정서적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감성정치의 확장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타당성은 개별 사료의 완벽성이 아니라 이질적 자료들 간 교차 검증을 통해 확보된다. 공식자료가 미화하거나 은폐하는 진실을 내부자의 증언으로 복원하고, 반대로 내부자 증언의 주관성을 공식자료와의 대조를 통해 객관화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도출된 고립, 폭력, 감정 조작 등과 같은 패턴이 반복적으로 확인될 때, 김정은의 ‘고독한 자아’는 북한 권력 구조가 산출한 필연적 결과임을 입증할 수 있다.

## II. ‘고독한 자아’의 기원

### 1. 출생의 비가시성: 태생적 결핍과 비밀주의

김정일 가계의 후계 구조는 태생적인 은폐성을 특징으로 한다. 장남 김정남은 김정일과 성혜림과의 비공식적 관계에서 출생한 신분적 제약으로 인해, 6개

의 보조 차단막이 설치된 관저 안에서 8년 동안이나 갇혀 살아야 했다. 외부 이동 시에는 차창을 가린 이른바 ‘수인차(囚人車)’를 이용했고, 소아과 밀실에서 치료받던 중 갑자기 병원에 들이닥친 김일성의 부인 김성애의 시선을 피해 외할머니의 등에 업혀 숨어들어야 했다(성혜랑, 2000: 373). 훗날 말레이시아에서 독살된 김정남의 비극은, 외가 식구들이 ‘애를 뺏길까 전전긍긍하던’ 30년에 걸친 은폐의 역사에서 이미 잉태되어 있었던 것이다.

김정남이 겪어야 했던 은폐의 고리는 김정은에게로 이어졌다. 김정은의 출생 또한 권력 정당성의 핵심 서사인 백두혈통 신화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는 구조적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그는 김정일의 비공식적 배우자 중 한 명인 고용희의 차남으로 태어났다.

김영숙(김정일과 공식 결혼한 부인 - 연구자 주)은 지금까지 김비서의 시야 밖에 있는 여인이었다. 지금 사는(?) 그녀는 현재도 앞으로도 김정일 비서와 가정을 고수할지 모르나 ‘재포’(재일동포)라는 사실을 온 국민이 알고 있다는 것은 지도자에게 백두산 성지에서 태어난 혁명 가계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거부감을 주고 있다. 그를 내세울 수는 없을 것이다. 성혜림은 맏아들의 어머니일 뿐 지금은 떠나간 존재이다. 언제인가 나는 어머니와 한담을 했다. ‘앞으로 정남이 뻘뻘 수반이 되면 누굴 데리고 나설까?’ ‘누이를 데리고 나설망정 어느 여자도 못 내놓을걸. 고가(고용희)를 내놓겠니, 서장동 여자(김영숙)를 내놓겠니.’ 김정일 비서는 내심 그 어느 여자와의 정식 결혼하지 않았다. 외부에서 김영숙을 정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아버지 앞에 합법화된 여자라는 의미 외에는 없다. 가계는 공민증도 없다. 그 어떤 법적 수속도 문서도 없는 것이다(성혜랑, 2000: 416-418).

혼외자 신분과 생모가 재일교포 출신이라는 배경은 유교 문화권의 적서(嫡庶) 관념과 결합하여 김정은을 백두혈통의 곁가지로 위치시켰다. 김정은은 조부 김일성에게조차 숨겨야 할 존재였다. 김정남의 존재로 인해 김일성에게 얽힌 질책을 받았던 김정일(이한영, 1996: 39)은 또 다른 혼외자인 김정은과 그의 형제를 공개하는 데 상당한 부담을 느꼈을 것이다. 게다가 김정은 가족의 실명은 측근들에게조차 알려지선 안 되는 특급 비밀이었다. 이러한 보안원칙에 따라 고용희와 함께 사진을 찍는 경우에도 배급되지 않았다(후지모토 겐지, 2010: 87).

김정은이 집권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생모의 정체와 가계의 상세 기록을 공표하지 못하는 상황은, 그의 출생 콤플렉스가 권력 정당성을 위협하는 아킬레스 건인 동시에 지도자의 심리를 위축시키는 내면의 그림자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04년 고용희가 사망했을 때에도 국가 차원의 공식 애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년기부터 존재를 숨겨야 했던 은둔의 성장기에 더해 어머니의 비공식적 지위, 조기 사망과 그 장례마저 비밀리에 치러야 했던 기억은 김정은에게 깊은 소외감과 신본적 불안, 정체성 혼란을 야기했다. 이러한 심리적 배경이 김정은 특유의 통치 방식을 구성하는 데 미친 영향과 그 구체적 양상은 후반부에서 논의한다.

## 2. 또래 관계 부재와 기형적 수직관계

김정은은 자아 형성의 결정적 시기에 대등한 인격적 교류를 가능하게 하는 또래 관계의 형성을 원천 봉쇄당하였다. 북한에서 1급 비밀에 부쳐진 최고 지도자의 자손이지만, 신본적 한계를 지닌 이중의 존재였기 때문이다. 김정일의 혼외자들은 수령의 신성한 권위와 백두혈통의 순결성에 흠집을 내는 도덕적 흠결이자 정치적 약점이었다. 전제왕조의 비정한 속성은 그들을 기형적으로 성장하게 했다. 최고 지도자의 권위라는 절대 가치 앞에 자녀들의 정상적 발달은 유예되었으며, 그들의 존재 자체가 국가적 비밀로 봉인되어야 했다.

김정은의 이복형인 김정남 역시 동일한 폐쇄적 환경에서 자라났다. 사회와 격리된 일곱 살의 김정남을 공부시키기 위해 여러 명의 또래 아이들로 구성된 간이학교를 만들었으나 보안 노출 문제로 두 달 만에 폐쇄되었다.<sup>4</sup> 이후 이모 성혜랑이 가정교사로 채용되었다. 성혜랑은 김정남이 비밀 노출 때문에 바깥세상

<sup>4</sup> “뚝뚝하고 깨끗하고 건강한 아이들을 선발해서 작은 학교를 만들기로 했다. 평양시 거주자 중 여자 5명 남자 4명을 뽑았다. 학생들을 뽑느라 고생을 많이 했다. … 그 아이들은 오후 다시 관저로 데려왔다. … 문제가 불거졌다. 토요일에 나갔다가 일요일에 들어오는 과정부터 문제였다. 울 때마다 신체검사를 해야 하는 어려움은 그런대로 참을만했지만, 끊임없이 나불대는 꼬마들의 입을 막을 길이 없었다. 보안 노출이 문제된 것이다. 결국, 간이학교는 다섯 달 만에 문을 닫았다.” 이한영, 1996, pp. 175-176.

과 격리된 채 친구도 없이 기형적으로 성장했다고 회고했다. 어린 김정남을 시외로 데리고 나가 풀을 뜯는 가족도 보여주고 뛰어노는 아이들 곁에 가보라고 권유해도, 김정남은 그들을 보기만 할 뿐, 다가가지 못했다. 또래 언어를 습득하지 못한 김정남은 수평적 교제가 불가능했다(2000: 387). 김정남의 비극적 성장 과정은 김정은에게도 그대로 반복되었다.

사회학적 관점에서 자아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타자와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구축되는 사회적 산물이다. 또래 관계는 아동이 사회적 규범을 내재화하고 협상 기술을 익히며 건강한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는 사회화의 장(場)이다. 자아를 객관화하고 정서적 조절 능력을 함양하는 필수과정인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결여됨에 따라 김정은에게 진정한 우정이나 동료 의식을 경험할 기회는 없었다. 관저 내부의 놀이 상대에게조차 자신의 실명을 비밀에 부쳐야 했고 ‘작은 대장’이라는 위계적 호칭으로만 존재했다.<sup>5</sup> 스위스 유학 시절 단편적인 기억을 제외하면, 그의 생애 전반은 폐쇄된 궁궐 내에서 자신을 신격화하는 가신 그룹에 포위되어 있었다. 모든 욕구가 즉각 충족되는 환경은 정교한 감정 통제 능력의 부재로 이어졌다.<sup>6</sup>

어려서부터 김정은을 둘러싼 모든 인간관계는 수직적이었다. 그의 세계에 대등한 인간은 없었고, 자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그 위에 군림하는 부친뿐이었다. 후지모토에 따르면, 김정은과 그의 형제들은 요리를 해주고 놀이 상대가 되어 주는 자신을 호칭 없이 이름만 부르며 반말했고, 친척보다 가깝고 엄마처럼 따르던 부친의 비서 김옥에게조차 ‘옥이’라고 칭했다. 김정은은 60세가 넘는 김일

<sup>5</sup> “왕자들은 어린 시절 아버지 김정일을 ‘파파’라고 불렀으며, 어머니 고영희를 ‘엄마’라고 불렀다. 김정일과 고영희는 정철대장 ‘큰 오빠’, 정은대장을 ‘작은 오빠’라고 불렀고, 측근들과 주변 사람들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철대장은 ‘큰 대장’, 정은대장은 ‘작은 대장’이라 불렀다. 김정일을 제외한 김정일 패밀리의 실명에 대해서는 측근들한테도 밝히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듯했다.” 후지모토 겐지, 2010, pp. 56-57.

<sup>6</sup> “정남이의 이를 뽑아야 되는데 안 뽑겠다고 영영 울어서... 이모가 달래다 안되자 김정일에게 연락했는데 김정일이 대낮에 달려와서 달랬다고 한다. 하지만 그 역시 뽀족한 수가 없었다. 하다 하다 안 돼 ‘어떻게 하면 이 뽑을래?’ 하니 정남이가 ‘빠빠하고 똑같은 자동차 한 대 달라’고 했다고 한다. 그 자동차는 캐딜락이었다. ... 김정일이 캐딜락을 사준다고 약속하고서야 이를 뽑았는데, 김정일은 진짜로 캐딜락을 사줬다고... 나도 그 캐딜락을 잘 안다. 군부대 시찰 등 정남이와 그 차로 여기저기를 다녔다.” 이한영, 1996, pp. 39-40.

성의 부관을 발로 치며 “대원수님(김일성)은 왜 이런 땅딸보를 부관으로 삼은 거지?”라고 조롱하기도 했다(후지모토 겐지, 2010: 7, 132). 이는 김정은 형제만이 아니라, 경어 사용법을 체득하지 못한 채 성장한 김정남의 사례(이한영, 1996: 33)에서도 확인되는 김씨 일가 공통의 습속이다. 이러한 호칭 체계의 파괴는 김씨 일가가 지닌 폐쇄적인 특권 의식과, 연령이나 사회적 지위를 압도하는 백두혈통 중심의 전근대적 계급 인식을 극명하게 드러낸다. 타인의 인격에 대한 존중이 거세된 유년기의 습속은 최고 지도자의 지위에 오른 후에도 이어졌다. 김정은이 간부들에게 하는 말은 나이에 상관없이 거의 반말이었고, 그들은 당연하게 받아들였으며, 가끔 지도자가 존댓말을 쓰면 오히려 불안해했다.<sup>7</sup> 피지배층이 지도자의 무례함에서 오히려 안도감을 찾는 기형적 권력 관계가 고착된 것이다.

수평적 관계의 결여는 공감 능력이 자라날 자리에 지배의 논리만을 채워 넣었다. 동등한 위치에서 협상하고, 양보하고, 갈등하고, 화해하는 경험 없이 자란 결과, 정서적 역량이 미발달된 상태로 남게 되었다. 동시에 권력의 최정점과 인간적 유대의 최저점에 놓인 고독한 존재로 만들었다. 김정은의 눈물은 세련된 정치적 위선이라기보다 사회화되지 않은 미성숙한 내면이 절대권력이라는 거대한 하중과 부딪칠 때 발생하는 마찰열에 가깝다. 즉, 대등한 인간관계를 배우지 못한 주체가 겪는 실존적 고독의 파열음이라 할 수 있겠다.

### 3. 생일 의례와 권력학습

김정은의 성장 배경은 일반 아동 발달 과정을 벗어난 특수한 환경이다. 그는 정교하게 설계되고 의례화된 권력 승계 시스템 속에서 자아를 형성했다. 김정은의 생일이면 성대한 연회가 열리고 그를 위한 찬양가가 울려 퍼졌다. 김정은이 후계자로 등장할 때 전체 인민이 불러야 했던 가요 〈발걸음〉은 그가 아홉 살 되던 1992년 1월 8일 생일 선물로 바쳐진 노래였다(후지모토 겐지, 2010: 122-127). 아

<sup>7</sup> SBS, 2024. 9. 30., “북한 군부 1인자가 줄지에 마당 쓰는 신세로... 간부들 벌벌 떨게 한 사건”,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812202&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검색일: 2026. 1. 3.\)](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812202&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검색일: 2026. 1. 3.)).

동기부터 겪은 이러한 경험은 자기중심적 세계관을 극단적으로 강화하고 보편적 사회 질서를 체득할 기회를 차단한다. 결과적으로 사회적 상식과 단절된 채 자신만의 폐쇄적 성벽 안에서만 기능하는 기형적 통치 인격을 형성했다. 김정은은 평범한 인간으로서의 인성 대신 체제를 지탱하기 위한 신성만을 강요받으며 권력의 우상으로 박제되었다.

김정일은 자신의 어린 아들들에게 군복을 입혔고, 생일 때마다 계급장에 별을 달아주었다. 그러다 보니 김정남의 경우 ‘대원수’까지 되었다.<sup>8</sup> 어깨에 별을 단 아이가 유년기를 어떻게 권력자의 습속으로 변형시켜 나갔는지 보여주는 미시적 증거이다. 이는 단순한 대장 놀이가 아니라 식민 지배의 원한을 동력으로 삼는 유격대국가<sup>9</sup> 내에서 역사적 사명을 깨우치는 신성과 의례의 권력 승계 훈련이었다. 아이의 어깨에 실린 대장별은 단순한 계급장이 아니라 유격대국가의 정통성과 영도권을 대물림하는 상징적 기호였다. 지도자의 아들은 별의 무게를 통해 자신의 실존을 혁명의 수뇌부로 수용한다. 북한에서는 일반 가정에서조차 아이들에게 명절옷으로 군복을 입힌다. 이러한 군사적 사회화는 일상의 모든 영역을 항일유격대식으로 조직하는 유격대국가의 보편적 특성이며, 수령 가문을 중심으로 대를 이어 혁명을 완수해야 한다는 소명을 미래세대에 체화시키는 집단적 무의식의 발현이다.

<sup>8</sup> “...그들이 바로 형 정철과 동생 정은이었다. 그 두 사람은 군복차림으로 김정일을 보자 군인처럼 부동자세로 최고의 예를 갖춘 경례를 하며 맞았다.” 후지모토 겐지, 2010, p. 21; “정남이는 생일이 되면 관저를 지키는 대대를 사열한다. 명예 위병대라고 부르는데 생일을 앞두고 소련 국방부에 주문해서 맞춘 소련 육해공군 원수복을 입고 긴칼을 차고 아버지 김정일의 손을 잡고 사열을 했다. 정남이 옆에는 부관 세 명이 따라 다녔다. 그들의 임무는 정남이와 놀아주는 것이었다. 정남이 생일은 5월 10일이다. 나는 76년 정남이가 여섯 살 때부터 열두 살 될 때까지의 생일을 지켜봤는데, 제일 먼저 말해야 할 것이 매년 4월 중순쯤에 출발하는 선물구매단이다. 정남이의 생일선물을 사기 위해 외국으로 사람을 파견하는데, 그것이 선물 구매단이다. 선물은 해마다 1백만 달러 정도를 사온다. 생일 때마다 러시아육해공군 원수복과 조선인민군 원수복을 맞춰온다. 그리고 매년 생일마다 계급이 올라갔는데, 세 살 때 소장, 네 살 때 중장, 다섯 살에 상장, 여섯 살에 대장, 일곱 살에 원수, 여덟 살에는 대원수로 올랐다. 아버지인 김정일이 올려주고 계급장을 군복에 달아주었다. 여덟 살 이후 관저의 수행원들은 정남이를 대원수동지로 불렀다.” 이한영, 1996, pp. 33-37.

<sup>9</sup> 항일빨치산 모델을 전 국가로 확대한 구조는 국가사회주의 체제 위에 구축된 2차적 형성물로서, 그것은 김일성이 유일한 사령관으로서 인민 전체를 유격대원, 수령의 전사화하는 북한적 특수성이다. 와다 하루키, 2002, pp. 127-131.

김정은이 유년기부터 받은 과도한 찬양은 비현실적이고 부풀려진 자아상을 만들어내고, 수령 가문의 위업을 계승해나가야 한다는 압박은 타인을 명령과 통제 대상자로 규정하고 자신을 권력의 정점에 위치시키는 인지 구조를 형성했다. 보편적 청소년기는 수평적 또래 관계를 통해 자아 정체성을 탐색하는 시기이지만, 김정은의 경우 부친 김정일로부터 ‘나를 가장 닮은 아이’<sup>10</sup> 인정받으며 후계자라는 결정된 미래에 자아를 박제당했다.

#### 4. 놀이 속에서 체화된 절대자 정체성

김정은은 타인과 평등하게 소통하는 법보다 상대를 굴복시키고 조종하는 법을 먼저 익혔다. 후지모토 겐지가 목격한 김정은은 놀이할 때도 주도적이고 지배적인 성향을 보였으며 모든 상황을 자신의 리더십을 과시할 기회로 활용하였다. 김정은은 농구 시합이 끝나면 “수고했다. 해산!” 하고 들어가 버리는 형 김정철과 달리 자신의 팀에서 반성회를 열었다. 함께 뛰었던 성인 선수들을 칭찬하거나 질책한 뒤 미소 짓는 김정은의 모습(2010: 130-131)은 감정을 타인을 사로잡는 기술로, 권력 행사의 도구로 사용하는 방법을 어려서부터 습득했음을 보여준다. 분노와 회유, 처벌과 자비를 결합하여 상대를 장악하는 권력의 감각은 일상의 놀이를 통해 내면화되었다.

김정은은 유년기부터 상대방의 작은 실수에도 폭력적으로 반응했다. 게임을 하던 중 실수를 한 김정철의 얼굴에 게임 도구를 집어 던지거나, 이모가 ‘작은 대장’이라 부르자 “내가 아직도 유치원생인 줄 알아?”라며 강한 거부감과 분노를 표출했다고 한다. 결국 ‘대장’이라는 완전한 권위의 호칭으로 불리게 되어서야 그는 비로소 만족감을 표했다(후지모토 겐지, 2010: 129-130). 이 사례는 김정일이 온화한 장남이 아닌, 공격적 기질의 차남을 후계자로 낙점하게 된 배경을 시사한다. 특히 ‘작은’이라는 수식어에 대한 거부감은 서열에 대한 강박과 성숙한 권위체로 인정받으려는 욕구의 조기 발현으로 해석할 수 있다.

<sup>10</sup> “김정일은 평소에 정은대장에 대해서 ‘나를 닮았다’라고 만족스럽게 이야기를 했으며, 당이나 군 간부들 앞에서도 똑같이 말해왔다.” 후지모토 겐지, 2010, p. 164.

이처럼 김정은은 어려서부터 성인 권력자의 습속을 인격화하며 타인과의 공감 대신 위압적 복종을 이끌어내는 기질을 형성했다. 유년기의 전능감이 지도자 역할과 결합하면서 그는 자신의 감정 분출로 집단을 일사불란하게 통제하는 지배적 효능감을 체득했고, 이를 통해 절대권력자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갔다.

## 5. 공포의 일상화가 배태한 적대적 세계관

김정은의 스위스 유학 생활에 대한 자료는 부재하나, 김정남의 사례를 통해 그 심리적 배경을 추론해볼 수 있다. 수령 일가에게 개방된 외부 세계는 역설적으로 '남조선'이라는 기표에 포위되어 거대한 감옥이나 다름 바 없었다. 김정남이 다닌 제네바 국제학교에는 남한 대사관 자녀들도 재학 중이었다. 남한을 향시적으로 의식하는 수령 일가의 피해망상적 경계는 극단적이었다. 김정남의 보호자들은 '남조선 대사관 차량이 아이를 납치할지 모른다'는 공포에 사로잡혀 집안에 몽둥이까지 준비해두었으며, 학교 뒤 다락방에서 쌍안경으로 정문과 마당을 감시하던 중 의심 차량이 목격되자 조기 철수를 결정했다. 이처럼 유학 경험은 건문을 넓히는 기회보다 고립된 공포 속에서 타자에 대한 근원적 적대감을 강화하는 비극적 환경이 되었다(성혜량, 2000: 397-399).

평양의 절대권력자 자녀들에게 분단의 경계 밖은 적대적 타자의 위협 속에서 스스로를 미약하고 고립된 존재로 전략시키는 공간이었다. 분단체제의 적대성은 북한 수뇌부의 내면에 철책을 세웠다. 분단은 상대의 소멸이 곧 나의 존립으로 연결되는 '제로섬(Zero-sum) 게임' 구도이다. 1968년 청와대 습격 사건은 북한이 주도한 사건임에도 역설적으로 상대가 자신을 언제든지 암살할 수 있다는 구조적 공포를 실체화했다.

스위스 유학시절 김정은은 박은(Pak Un)이라는 가명으로 자신을 숨겨야 했다. 언어장벽과 문화적 이질감 속에서 친구를 사귀기 어려웠던 그는 학급의 몇 명에게 자신이 김정일의 아들임을 고백했다. 이 사실은 요미우리신문 2009년 6월 16일 석간에 기사로 실렸다. 부친이 발설하지 말 것을 명령한 일급비밀이었으나, 북한과 같은 특별 대우가 전무한 환경에서 진짜 자신을 확인받고 존재감을 과시하려 했던 유아적 전능감의 발현이었다(후지모토 겐지, 2010: 133).

정체성 은폐를 강요받는 성장은 자아 형성에 근본적 왜곡을 초래한다. 포식자를 피해 다니며 형성된 자아는 극단적 적대감과 경계심으로 발현되는 병리적 인격으로 고착되었다. 스위스 유학시절 ‘우리 집 골목에 검은 차가 있다’는 무서운 소리를 듣고 자란 아홉 살 김정남은 ‘미국놈 대가리’를 그리며 이데올로기 요새 안으로 숨어들었다(성혜량, 2000: 397-399). 적(남한)에게 후계 자산을 탈취당하지 않으려는 체제 보위적 강박과 과잉보호는 아이의 자유를 억압하는 구속장치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세상은 공존이 아니라 자신을 파괴하려는 위협의 공간으로 전치(轉置)되었고, 분단체제의 적대 논리가 내면화된 편집증적 세계관은 후일 김정은이 권력을 장악했을 때 공격적이고 폐쇄적인 리더십의 동인이 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3장에서 좀 더 깊이있게 다루고자 한다.

### III. 시스템이 주조한 독재자: 신성의 강제와 인성의 거세

본 연구는 김정은의 눈물을 정치적 연출이 아니라 시스템에 의해 억압된 인간성의 표출로 해석한다. ‘독재자 김정은’과 ‘인간 김정은’이라는 두 층위를 구분하여 양자가 충돌하고 공존하며 하나의 통치 인격으로 수렴되는 과정을 추적한다. 그의 눈물은 강제된 신성과 억압된 인성 사이의 긴장이 임계점에서 분출된 결과다.

#### 1. 숙청의 필연

김정은 집권 이후 고위 간부들의 연쇄숙청 및 처형은 김정은 개인의 잔혹성을 넘어 권력의 절대성을 수호하려는 수령독재 메커니즘이 작동하면서 발생하는 구조적 폭력의 필연적 결과로 해석해야 한다. ‘개국 공신들을 멀리하라’는 수령 일가의 가훈이었다. 이는 전근대 세습 왕조의 통치 논리와 궤를 같이한다. 오스만 제국의 메메드 3세가 즉위 직후 잠재적 경쟁자인 19명의 형제를 한꺼번에 교살한 것처럼, 세습독재 국가에서 잠재적 경쟁자의 제거는 생존을 위한 합리적 선택으로 간주된다. 김정일이 간부들 앞에서 김일성의 교시를<sup>11</sup> 되새기며 숙청

을 정당화했고, 김정은의 행보 역시 시스템의 필연적 작동기제이다.

북한의 수령독재는 권력 분점을 허용하지 않는 절대성을 본질로 한다. 김정은 집권 초기 경험 없는 젊은 지도자라는 이미지는 유일영도체계에 미세한 균열을 일으켰으며, 이는 배신과 반란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sup>12</sup> 노획한 후건인 집단에 둘러싸인 젊은 지도자에게 권력을 공고화할 수 있는 가장 신속한 수단은 숙청이었다. 장성택 처형(2013)은 권력 수호를 위해 인륜(人倫)마저 단절해야 한다는 시스템의 비정한 원칙을 대내외에 선포한 상징적 사건이었다.

특히 이복형 김정남에 대한 김정은의 열등감과 불안은 공격성을 극대화하는 기폭제가 되었다. 정통성의 측면에서도 김정남은 김일성의 각별한 총애를 받으며 성장한 공인된 후계세대였던 반면,<sup>13</sup> 김정은이 김일성과 찍은 사진이 없다는

11 “... 1982년 2월 16일 아침 김정일의 다음과 같은 ‘말씀’이 당중앙위원회 모든 일꾼들에게 전달되었다. ‘김일성은 당을 강화하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수하려면 개국 공신들을 멀리해야 한다고 내게 가르쳤습니다...’ 김정일은 1974년 2월 수령후계자로 공식 추대된 직후에 김일성종합대학 출신 동창생 여러 명을 당중앙위원회에 소환했는데, 목적은 소위 ‘대학 시절 김정일 덕성실기’를 집필하도록 해서 빠른 기간 안에 후계자 우상화를 통한 후계체제 확립을 도모하는 것이었다. ... 그들은 차츰 자신들을 과신하여 ‘김정일이 우리들의 노력으로 쉬이 우상화되었으니, 결국 우리가 김정일을 후계자로 만든 셈’이라는 잠재의식에 빠져들게 되었다. 그리고 그 잠재의식이 1981년 말 어느 대학동창생 술자리에서 이구동성으로 호응한 다음과 같은 막말로 표출되었다. ‘사람 하나 지도자로 만드는 거, 일이 아니더라.’ 이 발언은 당시 그 자리에 동석했던 동창생 밀고자에 의해 김정일에게 즉시 보고되었고, 이것으로써 후계자 체제구축의 개국공신이라는 영화를 한껏 누리던 그 동창생들은 모두 출당-철직-해임 처분을 받고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갔다. 그리고 김정일의 지시로 그때부터 북한에서는 동창생 관계라든가 동창생 인연, 동창생모임이라는 세태가 완전히 없어졌다.” 김덕홍, 2015, pp. 92-93.

12 2013년 수산부업기지를 이관하라는 김정은의 명령이 하달되었지만 석 달째 이행되지 않은 채 장성택의 결론을 기다리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관을 둘러싼 군·당 갈등과정에서 군인 2명이 민간인에게 맞아 사망하는 사태로 번졌다. 이 당시 노동당 내부에서 장성택이 ‘1번 동지’로 불릴 만큼 김정은과 병렬적인 권력 중심으로 기능하고 있었음을 드러낸 사건이었다. 류현우, 2025, pp. 336-337.

13 “정남이는 아버지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김일성에게도 사랑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 정남이는 총을 참 좋아했다. 언젠가 김정일이 벨기에산 권총을 주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그런데 약속한 날짜에 권총이 도착하지 않아 정남이에게 주지 못했다. 정남이는 화가 나서 밥도 안 먹고 계속 울면서 심통을 부렸다고 한다. ... 김일성은 ... 외국 국가원수와 담화중 김정일에게 급히 의논할 일이 있어 전화했다가 그런 소리를 들은 것이다. 김일성은 그 국가원수에게 ‘우리 손자가 무슨 일 때문에 화가 나서 밥을 안먹고 있습니다. 내가 가서 달래주고 와야겠시오. 우리 밥 먹고 오후에 만납시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방문객을 쫓아낸 김일성이 정남이를 주석궁으로 불렀다. 김일성은 정남이에게 ‘할아버지가 꼭 약속을 지키마. 총 늦게 가져온 사람은 이 할아버지가 혼내주마’라고 얘기해 정남이를 달랬다.” 이한영, 1996, pp. 39-41.

사실은 그의 존재에 대해 김일성이 사망할 때까지 알지 못했음을 방증해준다. 국내 언론과 외신은 북한이 최대 명절인 태양절(김일성 생일) 등 중요한 계기마다 방대한 역사적 사진을 공개하면서도, 김정은과 김일성이 함께 있는 모습은 공개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해 왔다.<sup>14</sup>

북한 체제에서 김일성은 단순한 조부가 아니라 신격화된 절대 권위의 원천이다. 그 원천과의 직접적 연결고리가 사진 한 장으로도 입증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권력 승계의 근본적 취약점으로 남는다. 북한 내부에서도 김정은의 후계자 정통성을 지적하는 발언이 터져 나왔다.<sup>15</sup> 정통성이 혈통의 서사로 자연스럽게 뒷받침되지 않으니, 그것을 공포와 숙청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내적 논리가 작동한다.

세습체제에서 자신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적 인물은 그 존재 자체가 치명적 위협이다. 혈연이나 정통성을 공유하는 경쟁자는 잠재적 지지 세력을 결집하여 정권을 전복할 수 있는 구심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정남은 외신에서도 급변 사태 시 언제든 옹립될 수 있는 ‘대체 가능한 후계자’로 거론되었다. 그는 중국과 가까웠고, 국제사회와의 소통력, 백두혈통의 정통성이라는 삼박자를 갖춘 대안으로 평가받았다.<sup>16</sup> 또한 2011년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3대 세습은 사

<sup>14</sup> VOA, 2015. 4. 14., “북 매체들 ‘태양절’ 특집… 김일성·김정은 동반 사진은 없어”, <https://www.voakorea.com/a/2718532.html>(검색일: 2026. 3. 3.); KBS, 2024. 4. 20., “할아버지와 찍은 사진 한 장 없던 김정은… 코스프레 벗어나 홀로 서기? [뫓北 뉴스]”, <https://v.daum.net/v/1y3Vjalihy>(검색일: 2026. 3. 3.).

<sup>15</sup> 대표적인 사례가 2013년 3월 발생한 김균의 숙청 사건이다. 본래 북한의 권력 승계 과정에서 ‘원가지’와 ‘결가지’는 후계자의 정통성과 비정통성을 구분하는 핵심 은유로 사용된다. 김정일의 비서이자 사실상 마지막 부인이었던 김옥의 남동생 김균은 사석에서 고용희가 낳은 김정은 형제를 ‘결가지’로, 김영숙이 낳은 김설송을 ‘원가지’로 지칭하며 김정은의 백두혈통 정통성을 정면으로 부정하였다. 이는 가계 우상화의 취약점을 건드린 ‘수령 모욕죄’로 간주되어 김균은 즉각 처형되었으며, 김옥 일가 전체가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되는 등 대대적인 숙청이 단행되었다. 류현우, 2025, p. 270.

<sup>16</sup> “시진핑의 한국 방문이 김정은에게 준 심리적 충격은 컸다. 이후 중국은 북한을 노골적으로 패싱했고, 대북 지원을 중단했다. 시진핑이 마음만 먹으면 김정은을 김정남 카드로 대체할 수도 있었다. 김정남은 국내 정치적 기반이나 자금력은 없었지만, 김정일의 장남, 개혁성향, 중국의 보호라는 상징성과 안전망이 있었다. 중국 입장에선 김정은이나 김정남이나 모두 김정일의 아들이며 백두혈통이었기에 누가 지도자가 되는 중요치 않았다. 김정은이 택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김정남을 아예 제거해 누구도 자신을 대체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래서 김정남 암살은 스탠딩 오

회주의 이념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sup>17</sup> 김정은은 흔들리는 정통성과 자신의 권력을 위협할 대안을 원천 소거하는 방어전략을 선택했다. 그것은 2017년 김정남 암살이었다.<sup>18</sup> 이 사건은 김정은을 권력투쟁의 희생양으로 부각시키고 국제적 동정여론을 환기하는 반면, 김정은을 암살의 배후이자, 잔혹한 독재자로 낙인찍었다. 결국, 혈통적 정당성을 독점한 대가로 김정은은 인간성을 상실한 기형적 통치자로 전락했다.

## 2. 도덕성의 파열: ‘고모부 죽이는 놈이 사람 새끼냐’

북한은 유교사회다. 효와 가부장적 질서는 가족국가의 기풍이었으며, 통치자의 권위는 도덕적 모범에 근거한다. 장성택 처형은 이러한 유교적 인륜을 파괴함으로써 김정은의 도덕적 정당성을 무너뜨린 사건이었다. 장성택은 김정일 사망 후 아버지를 대신해 2012년 김정은과 2013년 김여정의 결혼식을 집안의 어른으로 주관하면서<sup>19</sup> 혼주 자리를 지켰다. 유교적 가족 질서에서 조카가 가문의

더, 곧 집행될 때까지 유효한 명령이 됐다. 임무가 수행되면서 그 스탠딩 오더는 막을 내렸다.” 류현우, 2025, p. 356.

<sup>17</sup> 경향신문, 2011. 1. 18., “‘아버지 김정일도 3대 세습은 반대했다’... 김정남 日 인터뷰서”, <https://www.khan.co.kr/article/201101281116441/amp>(검색일: 2026. 1. 9.).

<sup>18</sup> “머칠 후 말레이시아 당국의 수사결과 용의자로 지목된 북한 국적자 7명의 신원이 공개됐다. ... 그들 가운데 내가 전부터 알던 사람이 두 명이나 있었다. 한 사람은 리지현이었다. 그는 외무성 아시아2국 동남아과에서 근무했던 직원 ... 다른 한 사람은 현광섭이었다. ... 언론에는 외무성 소속 외교관으로 소개됐지만 ... 국가보위성 5국(중앙기관 담당국) 부원으로 일하다 2016년 6월 말레이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 안전대표로 임명됐다. 리지현이 외무성에서 정찰총국으로 전환한 이력도 있었다. ... 특히 해외 대상 테러와 공작은 정찰총국 소관이 분명했다. ... 그가(현광섭) 국가보위성 21국(해외 반탐국) 부국장으로 승진했다며, 이제는 자신과 급수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했다.” 류현우, 2025, pp. 350-353.

<sup>19</sup> “목관관에서 열린 김여정의 결혼식 ... ‘공주님 남편이 미남이더라. 공주님과 김일성종합대학 동창이라고 하더라고.’ ... 장인은 결혼식 당일 김정은과 리설주는 결혼식 내내 기뻐했다고 전했다. 전통에 따라 신랑, 신부가 하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술을 따라 감사 인사를 올렸고, 전반적 분위기는 장성택이 주도했다고 했다. 장성택은 2002년 한국을 방문해 폭탄주를 배워온 뒤 ‘행사’ 때마다 출입문 앞에서 잔을 비우게 했다. 그 습관은 김여정의 결혼식에서도 나타났다. 장성택이 신랑에게도 도수 높은 양주와 맥주를 섞은 폭탄주를 권했고, 김경희가 말려도 ‘우리 조카사위가 얼마나 담이 큰가 보자’라며 잔을 내밀었다고 했다. 신랑이 한 컵을 단숨에 비우자 모두가 손뼉을 쳤고, 장성택은 ‘주량이 도량’이라며 술을 잘 마시는 상남자라고 추켜세웠다고 했다. 장인은 2012년 4월 김정은과 리

구심점 역할을 했던 고모부를 처형한 것은 도덕적 패륜에 해당한다. 집안의 수치를 밖으로 발설하지 않는다는 유교의 ‘가추불가의외양(家醜不可外揚)’의 원칙마저 내팽개치고 가문의 치욕을 공표한 것은 수령 일가가 고수해온 도덕적 신성(神性)을 스스로 훼손한 자해 행위였다.

2013년 12월 12일 장성택 처형이 북한 매체에 공개되었다. 그 후 12월 31일 노동신문 1면에 김정은이 마식령스키장을 찾았다는 보도가 실렸다. 이날 김정은의 발언 요지이다.

장인은 김정은이 그 자리에서 동행한 간부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장성택 처형을 언급했다고 했다. 김정은은 ‘장성택의 오만방자함이 도를 넘어 참을 수 없을 지경까지 이르렀고, 당과 수령의 권위에 정면 도전했기 때문에 가차 없이 죽었다. 장군님께서 생전에 오냐오냐 해 줬더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내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려 했다. 원래 3년상을 치른 뒤 처리하려 했으나 하루하루 늘어나는 꼴이 가관이라 부득이하게 처리했다. 그놈은 이 땅에 묻힐 자격이 없으니 화형으로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총알도 아깝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실제 장성택 판결문에는 ‘최고사령관 명령에 불복하는 것들은 죽어서도 이 땅에 묻힐 자리가 없다’는 문구가 있다. 김정은은 처형전에 이미 화형을 결심했던 것이다(류현우, 2025: 342).

김정은의 발언에서 주목할 점은 죄책감을 회피하기 위한 ‘비인간화(Dehumanization)’ 전략이다. 인간이 아닌 존재를 소멸시키는 행위에는 도덕적 책임이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장성택을 ‘개만도 못한 쓰레기’로 격하하고 인간 이하의 존재로 규정함으로써 일가의 어른을 살해했다는 심리적 부채를 상쇄하고자 했다. ‘이 땅에 묻힐 자격이 없다’라는 선언은 김정은 자신의 잔혹성을 증언할 ‘기억의 기념비’(무덤)조차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 특히 화형(火刑)은 육체의 완전한 파괴를 통해 영혼까지 소멸시킨다는 종교적 함의와 함께, 불의 정화 상징성을 활용하여 오염된 존재를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제거하

설주의 결혼식 때도 장성택이 너스레를 떨며 분위기를 이끌었다고 기억했다. 그날 김정은과 리설주는 부부 이중창으로 ‘축배를 들자’를 불렀고, 김경희가 가문의 연장자로서 축사를 했다.” 류현우, 2025, pp. 258-260.

는 의례적 성격을 띤다. 화형과정에서 발생하는 희생자의 비명과 살 타는 냄새는 목도하는 이들에게 강력한 감각적 기억을 남겨 사회적 금기를 내면화시킨다. 역사적으로 화형은 시신조차 남기지 않음으로써 사후의 명예회복 가능성까지 원천 차단하는 중대 범죄에 대한 가중 처벌이었다.

장성택 처형 이후 김정은의 도덕적 권위는 체제 핵심부에서부터 균열을 일으켰다. 항일빨치산 1세대를 대표하는 황순희의 아들 류홍근은 사석에서 김정은을 향해 “고모부를 죽이는 놈이 사람 새끼냐”라고 일갈했다.<sup>20</sup> 이 발화는 단순한 비속어가 아니다. 이를 ‘도덕적 갈등을 경험했다’는 중립적 표현으로 순화할 경우, 인륜 파괴가 불러온 분열의 극단성과 자아 손상의 깊이를 실질적으로 포착할 수 없다. ‘사람 새끼냐’라는 단정적 의문문은 김정은을 인간의 범주에서 배제한다는 일종의 선언이었다. 류홍근의 발화는 유교적 전통과 인륜을 파괴하며 다져진 권력의 정점에서 지도자가 직면한 도덕적 공허와 인격적 파편화의 실체를 관통한다.

류홍근이 지도자를 정면으로 겨냥한 위협한 발언을 서슴지 않았던 배경에는 김씨 일가와 운명을 함께 해온 항일빨치산 가문의 역사적 위상과, 부모들 간의 특별한 혈연적 유대가 자리하고 있었다. 류홍근의 부모는 항일빨치산시절 김일성과 김정숙이 중매를 서고 결혼식 상까지 차려주었다. 부친 류경수는 6·25전

20 “차남 류홍근은 … 불평이 있으면 입에서 나가는 말이 화근이 되는 줄도 모르고 김일성과 김정 일까지 거침없이 욕하곤 했다. 김정일은 자신을 업어 키운 황순희의 체면을 봐 매번 넘어갔지만, 한 번은 비방혐의로 요덕에 1년 노동단련을 보내기도 했다. 보통 사람이면 총살감이었지만, 황순희의 아들이라 살아남았다. … 류홍근은 … 김정은을 향해 ‘집 식구들 아편하는 것은 제대로 통제 못 하는 놈이 무슨 나라를 통치하겠다고 난리냐’, ‘고모부도 죽이는 놈이 사람 새끼냐’, ‘사람들을 싸 죽이고 수용소로 끌고 가고, 정말 요즘 나라가 소란스러워 못살겠다’ 등 비방과 막말을 서슴지 않았다. 그의 발언은 … 국가보위성을 통해 김정은에게 직보됐다. … 김정은은 격분해 즉각 처형을 지시했다. … 2016년 2월 류홍근은 김정은을 비방중상한 말 반동으로 규정돼 처형했다. 북한에서 말 반동은 언행으로 김씨 일가와 노동당의 정책을 비난한 정치범을 가리키는 말로 죄의 경중에 따라 처형 또는 정치범수용소 이송 처분을 받는다. 류홍근은 고사기관총 사격으로 몸이 갈기갈기 찢겨 처참하게 처형당했다. 또 그의 자녀와 사위, 며느리, 손자, 손녀까지 모두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갔다.” 류현우는 이어서 2006년 9월 김정철이 아편을 달라고 장인에게 찾아와 때를 쓰다가 밤중에 두 차례나 집을 찾아와 문을 두드리던 일화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2025, pp. 266-267, 357-365. 북한의 전 정무원총리 강성산의 사위였던 강명도는 회고록 『평양은 망명을 꿈꾼다』(1995)를 통해 18호수용소 수감 당시 만났던 류홍근의 일화를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쟁 당시 가장 먼저 서울에 입성한 105탱크부대 사단장이었다. 당시 중앙청에 인공기를 꽂은 전차 번호 105와 사단장 류경수의 이름을 기념해 ‘근위서울류경수제105탱크사단’이라는 부대 명칭이 지어졌고, 이 부대는 혁명위업 계승의 상징이 되었다. 북한은 1960년 8월 25일 김정일이 105탱크부대를 찾은 날을 선군정치 출발점으로 명명하였다. 김정은 또한 김정일 사망 이후 첫 공식활동으로 이곳을 방문하여 직접 105탱크를 운전할 만큼 그 상징성을 중시했다.<sup>21</sup> 모친 황순희는 김정일이 태어났을 때 김정숙의 산후조리를 도맡았고, 김정숙의 사망 후 어린 김정일 남매를 친엄마처럼 돌봐주었다고 한다. 김정일은 황순희를 ‘어머니’로 부르며, 그가 노동당청사에 찾아올 때면 정문까지 마중 나갈 정도로 깍듯이 예우했다(류현우, 2025: 325-326). 콩고 주재 전 북한 외교관이었던 고영환은 김정은에게 황순희는 친할머니와 같은 존재라고 증언했다.<sup>22</sup> 황순희는 항일빨치산 1세대를 대표하는 마지막 생존자였다.

한편, 항일빨치산들에게는 ‘우리가 이 나라를 만들었다’는 주인의식도 있었다. 김정은 집권초기 노간부들을 일괄 은퇴시키고 젊은 간부들을 대거 등용하라는 방침이 내려왔다. 황순희는 선대부터 내려온 노·중·청 연령균형 배치원칙을 상기시켜 해당 방침의 수정을 끌어냈으며, 이는 그가 김정은에게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류현우, 2025: 327). 류홍근의 거침없는 발언은 이러한 혁명공동체 위상과 자부심에 근거하여 지도자의 정통성을 증명해주는 동시에 심판할 자격이 있다고 여기고 그 도덕적 탈선을 꾸짖는 내부주권자의 태도로 이해할 수 있다.

수령 일가의 운명이 곧 자신들의 운명이라는 공동체 의식으로 3대 세습을 정당화해 왔던 항일빨치산의 핵심 2세가 김정은을 통치자이기 전에 인간으로서의 자격을 정면으로 부정했다는 사실은 체제의 혈맹 신화가 균열되고 있다는 신호

<sup>21</sup> KBS, 2012. 1. 7., “[클로즈업 북한] 첫 공개활동, 류경수105탱크사단은?”,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2416166>(검색일: 2026. 1. 25.); 항일빨치산과 그 후손들은 대를 이어 수령 일가에 충성하였으며 그것은 수령 일가의 운명이 곧 자신들의 운명이라는 강력한 공동체 의식을 공유했기 때문이다. 오혜선, 2023, p. 21.

<sup>22</sup> YTN, 2015. 7. 30., “北 ‘빨치산 혈통’ 황순희, 김정은에 ‘엄지 척’”, <https://www.youtube.com/watch?v=z3SQbKTLAqg>(검색일: 2026. 1. 29.).

였다. 또한, 김정은이 확인받고자 했던 세습의 정통성과 엘리트집단의 인정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선언이었다. 류홍근의 처형은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내부의 목소리를 물리적으로 소멸시키지 않고서는 권력을 유지할 수 없다는 김정은의 통제 불가능한 내적 불안과 공포를 가감 없이 드러낸 사건이었다.

2020년 1월 북한 매체는 김정은이 황순희의 장례식장을 찾아 조의를 표한 사실을 보도했다. 가해자인 김정은은 노혁명가의 빈소를 찾아 유가족의 손을 잡고 위로하는 모순적 행보를 보였다. 황순희는 치매로 인해 아들이 김정은에 의해 처형된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다(류현우, 2025: 365). 자신이 처형한 자의 어머니 앞에서 슬픔을 연출하는 극단적 이중성은, ‘비정한 독재자’와 ‘자애로운 아버지’라는 두 정체성이 기묘하게 공존하는 김정은의 분열적 자아상을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이중적 정체성이 체제 공고화 기제와 결합하는 양상은 후반부에서 보다 상세히 고찰할 예정이다.

### 3. 세습의 굴레와 연출된 카리스마

#### 1) 김일성 신화의 활용과 한계

세습 권력의 카리스마는 선대(先代)의 상징과 업적을 그대로 체현함으로써 획득된다. 그러나 김정은은 김정일처럼 20년 이상 후계자 수업을 거치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등장하여 준비된 지도자로서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를 노출했다. 더욱이 부친 김정일은 ‘고난의 행군’과 경제 파탄으로 실패한 지도자라는 부정적 유산을 남겼다. 이처럼 세습은 권력의 정통성뿐만 아니라 선대의 과오까지 고스란히 승계해야 하는 양날의 검이다.

북한 인민은 풍요롭지 못해도 의식주를 보장해주었던 김일성시대를 그리워한다. 이러한 김일성 향수는 사회적 활력으로 전환되어 체제가 붕괴 직전까지 내몰렸던 ‘고난의 행군’ 시기 ‘그리움의 정치’를 탄생시켰다(김윤희, 2016: 208). 김정일이 김일성의 카리스마와 업적, 김일성에 대한 인민의 존경과 숭배, 절대적 지지를 체제수호의 정신적 통합에너지로 활용하였던 것처럼 김정은 역시 이 경로를 답습했다.

김정은은 등장부터 김일성의 머리 모양과 인민복에 농립모를 쓰고 제스처까

지 모방하면서 인민의 기억 속에서 젊은 시절의 김일성을 소환하였다. 또한, 김일성의 통치 의례로 명실공히 남아있던 육성 신년사를 부활시켰다. 이는 생전 공식 석상에서 목소리를 공개하지 않았던 김정일과 차별화된 행보였다. 김일성은 매해 신년경축 모임에 참석하여 청년학생들의 공연을 관람하고 그들과 사진을 찍었다. 김정은은 김정일이 영원한 수령의 의례로 남겨두고자 불참했던 신년경축 모임에 직접 참석함으로써 김일성 시대의 가족국가 정서를 복원하고자 하였다.

역설적으로 김정은이 김일성 신화에 기댈수록 독자적 권위는 축소되고, 김일성의 후광 속에서 존재의 의미를 찾는 한계에 직면했다. 선대의 유산을 계승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극복해야 하는 이중의 과제가 직함의 신설과 폐지를 번복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다.<sup>23</sup> 잦은 직함의 변천사는 선대의 후광 없이 온전한 권위를 세울 수 없는 세습 권력의 태생적 한계와 선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려 할수록 매몰될 수밖에 없는 김정은의 통치 딜레마를 드러낸다.

## 2) 노간부들의 시선: ‘애송이’ 지도자

김정일의 경우는 1974년 후계자 지명 후 1994년까지 20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치며 정권의 핵심들과 운명 공동체를 구축했다. 그는 조명록을 비롯한 항일 빨치산 1세대의 품안에서 걸음마를 떼었고, 최룡해를 비롯한 혁명 2세들과 함께 성장했으며, 남산중학교와 김일성종합대학을 거치며 탄탄한 학연과 유대를 형성했다. 특히 남산중학교 동창이자 노동당 39호실장을 역임한 전일춘과의 일화는 그들의 유대가 영도자와 전사 관계를 초월하여 생사고락을 함께한 기억

23 “2012년 4월 김정은이 북한 노동당 제4차 대표자 회의에서 제1비서로,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취임했다. … 그런데 시리아 외무부 의례국에서 …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라는 의미는 김정일위원장 다음가는 직위인지와 두 번째 세 번째 위원장이 있는지도 몰랐다. … 4년 후 김정은의 직함은 다시 바뀌었다. 2016년 김정은은 노동당 제1비서 직책을 폐지하고 노동당 위원장으로,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방위원회를 폐지하고 국무위원회를 신설한 후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했다. … 노동당 위원장은 김일성이 오래전에 폐지한 당직이다. … 그는 김일성은 영원한 주석, 김정일은 영원한 총비서라고 말했다. 그러니 아버지의 총비서 직함을 사용할 수 없었다. 그로부터 5년 후 김정은의 당 직함이 또 바뀌었다. 2021년 1월 김정은은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당 총비서로 취임했다. 이로써 아버지 김정일은 영원한 총비서가 아니라 전직 총비서가 됐다.” 류현우, 2025, pp. 135-136.

과 정서적 동질감에 바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일춘은 남산중학교 시절 김정일이 해바라기씨를 좋아했던 사실을 기억하며 직접 재배한 해바라기씨를 선물했다.

‘일춘아. 지금 집사람하고 네가 보낸 해바라기씨를 까먹는 중이야. 근데 쪽정이라도 좀 있어. 이거 까먹다 보니 우리 학교 때 생각이 나더라.’ 그리고는 해바라기씨를 입으로 까서 서로 얼굴에 뿌리던 고등학교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며 대화를 주고받았다. 이어 김정일은 이렇게 덧붙였다. ‘요즘 네가 보내준 팔 베개를 베고 자는데, 머리가 참 시원해서 좋다야. 네 집사람에게도 고맙다고 전해.’ 장인은 장군님께서 고등학교 다닐 때 해바라기씨 까먹는 걸 제일 좋아해서 선물로 올렸는데, 정말 드실 줄 몰랐다면 장모에게 김정일의 감사 인사를 전했다(류현우, 2025: 283).

반면, 김정은은 2~3년의 급박한 승계과정을 거쳤다. 앞서 다뤘듯이 국내 연고가 없는 김정은에게 인적 네트워크 부재는 생사를 함께할 동지의 부재를 의미했다. 이는 권력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였다. 김정은은 20대 후반의 나이에 조부와 부친을 수십 년간 보좌해온 60~70대 원로 엘리트들을 통제해야 하는 난제에 직면했다.

유년기부터 김정은은 타인의 경례와 호칭, 의례화된 복종을 통해서만 자신의 존재를 확인받을 수 있었다. 권력 승계 이후에도 이러한 인정 구조는 고착화되었다. 김정은은 자신을 향한 간부들의 언어 구사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2017년 말 군부 1인자였던 총정치국장 황병서의 해임 사례가 이를 뒷받침한다. 황병서는 인민군 총정치국의 전산망이 전소되어 문건보고체계가 멈추자, 김정은에게 전화로 “문건을 프린트해서 당중앙위원회 해당 부서에 넘겨 줘서 … 원수님 사무실 … 보고하겠다.”라고 했다. “알았다”고 전화를 끊었던 김정은은 다시 전화를 걸어 황병서를 추궁했다. 수령이 일하는 신성한 공간을 일반적인 사무실로 지칭한 점, 당중앙위원회가 물건이나 넘겨주는 장마당이어서 ‘넘겨준다고 했냐’고 문제 삼은 것이다. 결국, 70대 황병서는 혁명화 조치로 좌천되어 3개월간 당중앙위원회 마당을 쓰는 굴욕을 겪었다.<sup>24</sup> 김정은은 이처럼 노간부들을 통제하

<sup>24</sup> SBS, 2024. 9. 30., “북한 군부 1인자가 줄지에 마당 쓰는 신세로…. 간부들 벌벌 떨게 한 사건”,

며 굴복시키려 하지만, 그들의 내적 경멸에 시달리고 있다. 간부들은 표면적으로 ‘원수님’으로 받들며 경례하지만, 뒤에서 애송이로 취급한다.<sup>25</sup>

김정은에게는 노간부의 사소한 거동까지 자신의 권위를 측정하는 심리적 척도가 되었다. 그는 회의 참석자들의 미세한 움직임조차 자신에 대한 경시로 읽어낸다. 2016년 교육상 김용진은 회의 중 안경을 닦았다는 이유로 처형되었다(류현우, 2025: 373). 안경 닦는 일상적인 모습마저 김정은에게는 수령으로서의 권위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불손한 행동으로 해석된 것이다. 장성택은 김정은이 참가한 회의에서 박수를 건성치고 태도가 불손하다는 것이 숙청의 한 죄목으로 열거되었고, 인민무력부장 현영철은 회의 중 졸았다는 이유로 2015년 처형되었다. 자신의 권위를 세우는 것으로 내면의 불안을 해소하려는 김정은의 극단적 행태는 간부들의 보신주의와 자기검열을 강화하고, 간부조직을 경직시키는 원인이 된다.

결국, 엘리트들을 움직이는 동력은 신념에 찬 충성이 아니라 공포와 기회주의, 이해관계로 변질되었다. 공포에 기반한 복종은 상호 신뢰와 인간적 유대를 파괴하며, 이는 필연적으로 지도자의 과도한 의심과 숙청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숙청된 엘리트들은 체제 운영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실무 경험, 전문성을 축적한 인물들이었다. 이들의 제거는 경제관리, 외교협상, 군사작전 등 국가 운영 전반의 노하우 상실과 정책 결정의 질적 저하를 야기한다. 김정은 집권 후 엘리트층 탈북이 김정일 시대의 2.5배에 달할 정도로 급증하였다.<sup>26</sup> 이러한 사실은 엘리트집단의 결속력이 와해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 3) 김정은의 시선: ‘입 냄새 나는 영감들’

주체는 타자라는 ‘사회적 거울(Social Mirror)’을 통해 자아를 형성하고 교정한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812202&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812202&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검색일: 2026. 1. 12.).

<sup>25</sup> “그는 나에게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어. 하기가 제 잔등도 믿지 못해 깔고 자는데 누굴 믿는다는게 참 어리석지. 평양에서도 중국이 우리에게 이 정도까지 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거야. 원수님이 아직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외교에는 좀 미숙해’라고 말했다.” 류현우, 2025, p. 164.

<sup>26</sup> 조선일보, 2024. 8. 23., “엘리트 탈북, 김정은 때 2.5배로 급증”, [https://www.chosun.com/politics/north\\_korea/2024/08/22/2CIORMJPHZF2LCIHGA67Y7G4H4/](https://www.chosun.com/politics/north_korea/2024/08/22/2CIORMJPHZF2LCIHGA67Y7G4H4/)(검색일: 2025. 12. 16.).

다. 김정은을 둘러싼 노간부들은 김정은의 자아를 비추는 거울이다. 이들은 김 일성·김정일 시대를 온몸으로 겪어낸 살아있는 역사였기에 그들 앞에서 김정은은 끊임없이 선대와 비교될 수밖에 없다. 선대를 기준으로 바라보는 노간부들의 시선에서 김정은은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불안을 느끼며, 이를 상쇄하기 위해 그들을 더욱 위압적으로 대한다. 때로는 노간부들에 대한 생리적 혐오와 굴욕을 부여하는 공격성으로 발현되었다. 북한 매체에는 김정은 앞에 선 노간부들이 손으로 입을 가린 채 말하는 모습이 자주 등장한다.

2013년 9월 김정은이 김일성종합대학 교직원 살림집 건설 현장을 현지지도하던 때였다. 그는 동행 간부들에게 보고를 받다가 얼굴을 찡그리며 현황을 설명하던 중앙당 과학교육부 김모 부부장의 말을 갑자기 끊었다. ‘부부장동무. 오늘 이 닦았소?’ 그가 어리둥절해 ‘예. 닦았습니다.’라고 답하자 김정은이 말했다. ‘그런데 무슨 입 냄새가 그리 역하게 나오. 몸에서 영감 냄새 나는 것까지는 참겠는데, 입에서 구린내가 나니 숨을 쉬겠소. 가서 이 좀 닦고 오시오.’

얼굴이 벌개진 김부부장은 머리를 숙이고 자리를 떴다. 다른 간부들은 혹시 자기에게서 냄새가 나지 않나 싶어 저마다 손으로 입을 가린 채 숨을 내쉬어 보았다. 김정은은 김부부장이 사라지자 자리에 있던 간부들 모두에게 말했다. ‘내가 찾는다고 하면 입 냄새 안 나도록 이빨도 몇 번 닦고 오시오. 입 냄새에 영감 냄새까지 겹쳐 메스꺼워 죽을 뻔했소. 이제부터 입 냄새 나는 영감들은 내 앞에 나타나지 마시오.’ 그 후 노간부들은 김정은의 현지지도에 대비해 사무실에 칫솔과 치약, 향수까지 상비해뒀다. 그리고 김정은의 눈 밖에 날까 두려워 말을 건널 때 습관처럼 입을 가리기 시작했다(류현우, 2025: 288).

이는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니다. 김정은이 청산하고 싶으나 의존할 수밖에 없는 낡은 체제에 대한 생리적 거부감의 발현이다. 공개 석상에서 입 냄새 지적은 상대에 대한 모욕이며, 지도자 스스로의 품격을 손상시키는 발언이다. 김정은을 마주할 때마다 입 냄새를 의식해 입을 가리는 행위나 스스로 몸을 낮추는 측근들의 과도한 굴종은 김정은의 불안과 열등감이 그들에게 공포로 전이된 결과이다. 손으로 입을 가리는 노간부들의 제스처는 외적 복종인 동시에 내적 거부 상징이다. 그들은 입을 가림으로써 자신들이 얼마나 모욕당하고 있는지를 보는 이들에게 여과없이 노출하는 셈이다. 이 장면은 김정은과 엘리트들 간 관

계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타자 위에 군림하는 지배자는 피지배자가 인정하지 않으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기에 피지배자에게 통제권을 행사하며, 최측근에게 지위를 부여하고 관리하면서 최고 권력자로서의 자아상을 확인한다. 김정은은 의도적으로 노간부를 공개 모욕함으로써 ‘나는 너희를 언제든 굴욕시킬 수 있다’는 메시지를 투사하고 있는 것이다.

2015년 4월 어느 회의 때였다. 주석단에 앉아있던 김정은이 조연준 노동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을 불렀다. 조연준이 무릎을 꿇고 앉아 보고를 마치고 일어서려는 순간 무릎을 펴지 못했다. 간부들이 다가와 부축했고, 그는 겨우 무릎을 떼고 일어섰다. 당시 31세의 김정은은 78세 조연준이 자기 앞에서 조아리는 모습을 회의장 전체에 보여줬다. 그날 회의에 참석했던 장인은 이 광경이 너무 가슴 아팠다고 했다. 집으로 돌아온 장인은 조연준의 무릎관절이 나갔을 수도 있겠다며 회의장에서 있었던 일을 전했다. 장모는 쓸쓸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들었다(류현우, 2025: 289-290).

조현준의 이러한 행동은 노간부들로부터 권위를 인정받으려는 젊은 지도자의 극단적 민감성을 의식한 생존의 방편이며, 동시에 선대 세대 전체를 굴복시키는 상징성을 띤다. 상대의 존엄을 희생시켜 권위를 확립하려는 방식은 오히려 권위의 도덕적 토대를 약화하는 모순을 낳는다. 진정한 권위는 상대에 대한 존중에서 나온다. 결국, 김정은은 절대권력은 가졌으며 권위의 토대가 되는 진정한 존경을 얻지 못했으며, 누구와도 정서적 유대를 맺지 못하는 고립된 존재로 남게 되었다.

#### 4) 권위 부재의 증상: 지도자의 술주정과 손찌검

황병서의 마당청소 사례와 지도자의 술주정과 손찌검은 양상은 다르지만, 예측 불가능한 충동과 폭력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패턴을 공유한다. 이러한 행태를 학술적 용어로 순화할 경우 그 기저에 깔린 현장성과 생생함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도자의 신성화된 텍스트를 해체하고 ‘이 새끼’라는 폭언과 ‘손찌검’이라는 낱것의 언어 표상을 통해 신격화된 존재의 이면에 도사린

세속적 민낯을 정면으로 응시하고자 한다.

김정은은 선대가 구축한 신격화된 이미지를 계승하며 절대적 권위를 확립해야 하는 과업을 안고 출발했다. 이에 따라 그는 공개 석상에서 전지전능하고, 결단력 있는 지도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했다. 그러나 인간은 역할로만 실존할 수 없기에, 억압된 감정은 결국 균열의 틈새를 비집고 터져 나오기 마련이다. 2011년 김정일 영결식에서 흘린 김정은의 눈물에는 부친을 향한 애도인 동시에, 경제적 파산과 국제적 고립이라는 감당하기 어려운 국가적 현실과 이를 타개할 수 없는 무력감이 복합적으로 투사되어 있다.

집권 초기 술을 마시며 자주 흘리던 김정은의 눈물은 준비되지 않은 권력의 무게에 짓눌린 20대 청년의 솔직한 고백이었다. 류현우의 회고록에 따르면 파티에 참석한 간부들은 그런 김정은을 바라보며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20대에 국가 지도자의 짐을 졌으니 스트레스가 많을 것’이라며 연민의 시선을 보내기도 했다. 그런데 그의 인간적 무력감은 점차 가학성으로 변질되었다. 어느 날 술자리에서 만취한 김정은은 한 노간부 앞에 다가와 술병을 든 채 바닥에 마주앉았다. 그는 노간부의 뺨을 반복적으로 때리며 ‘왜 그랬어 이 새끼야’라는 폭언을 반복했다. 노간부는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무릎을 꿇고 무작정 잘못했다고 빌었고, 참석자들은 그가 아들뻘 지도자에게 굴욕을 당하는 장면 앞에 눈을 감았다. 하지만 김정은은 멈추지 않았다(2025: 291). 여기서 김정은은 노간부를 향해 논리적 해명이나 반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통치스트레스를 쏟아낼 대리 표적이 필요했을 뿐이다.

2015년 5월 19일 김정은의 대동강 자라공장 현지지도는 그의 충동적 가학성이 국가의 사법적 폭력으로 전이된 대표적 사례이다. 이날 북한의 조선중앙TV는 공장 수조에 녹조가 질게 끼어있는 장면과 함께 미간을 찌푸린 채 간부들을 질타하는 분노 어린 김정은의 표정을 그대로 공개하였다.<sup>27</sup> 전통적으로 인민을 위한 사랑과 헌신의 행보로 일컬어지던 지도자의 현지지도는 김정은에 의해 가학적 통제와 모욕의 장으로 변질되었다. 전력난으로 물관리를 제대로 못해 자라

<sup>27</sup> 중앙일보, 2026. 7. 6., “北 김정은, 1년 전 ‘버럭’ 했던 자라공장에서 파란대소환 까닭”, <https://www.joongang.co.kr/article/20268344>(검색일: 2025. 12. 23.).

가 폐사되었다는 지배인의 보고를 받자 김정은은 연장자인 그의 뺨을 때리며 ‘이 새끼야’라는 폭언을 퍼부었다고 한다. 지도자가 공식적인 현지도 현장에서 타인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유례없는 광경은 수행 간부들에게 큰 심리적 충격을 주었으며, 자라공장 당비서와 지배인은 ‘공장을 파괴한 반당분자’ 죄목으로 처형당했다(류현우, 2025: 375). 이 사건은 김정은이 전지전능한 절대자로 추앙받으면서도, 현실에서는 경제적 난관을 해결할 수 없는 무력감과 괴리가 예측 불가능한 폭력성으로 분출된 사례이다. 즉, 지도자로서 느끼는 내적 좌절이 가장 취약한 대상에게 공격성으로 전이된 전형적 양상을 보여주며, 궁극적으로 엘리트집단과의 심리적 유대를 파괴하는 부메랑으로 작용한다.

주목할 점은 김정은이 술자리와 현지도 현장이라는 상이한 공간에서 공통적으로 ‘이 새끼야’라는 하층적 비속어를 사용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국가 지도자의 언어가 아니다. 이 거친 발화는 수령의 역할에 억눌려 있던 ‘인간 김정은’의 민낯을 드러내는 순간이다. 그의 손찌검은 수령 역할과 실존의 괴리에서 발생하는 억압된 감정이 수평적 소통의 통로를 찾지 못한 채, 타인을 향한 가학적 폭력으로 왜곡되어 분출되는 것이다. 김정은의 폭력은 제지받지 않으며, 오히려 피해자의 굴종을 통해 정당화된다. 민주주의사회에서 지탄과 법적 처벌의 대상이었을 그의 가학적 행위는 수령독재 시스템에서 통치 기제로 용인되며, 지도자의 미성숙을 구조적으로 강화한다.

이는 류현우의 회고록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북한 매체를 통해서도 일관되게 포착되는 구조적 패턴이다. 2025년 평안남도 간석지제방 붕괴 현장을 찾은 김정은은 이를 ‘자연재해 현상으로 인한 악재가 아니라 철두철미 건달꾼들의 무책임성과 무규율에 의한 인재’라고 규정하며 간부들을 ‘정말 틀러먹은 것들’, ‘건달뱅이들’, ‘덜돼먹은 자들’이라 질타하였다. 2026년 1월 19일 함흥 용성기계공장 현지도에서는 내각 부총리를 면전에서 문책하며 ‘염소가 달구지를 맨 격’, ‘더 늦기 전에 제발로 나가라. 그 모양 그 꼴밖에 안 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현장에서 경질했다. 심지어 ‘호흡을 맞출 줄 모르는 정치적 미숙아들’, ‘경종을 경종으로 받아들이 줄 모르는 지적 저능아들’이라는 인신공격성 폭언을 서슴지 않았다.<sup>28</sup> 이러한 일련의 행태는 지도자 자신의 책임을 은폐하는 동시에, 정적 실패의 원인을 개별 간부들의 무능과 직무태만 탓으로 전가함으로써 공포

를 통해 복종을 추출하는 김정은식 통치술의 본질을 압축적으로 드러낸다.

북한 매체가 지도자의 절제되지 않은 언어를 여과 없이 보도한 것도 이례적이다. 본래 지도자의 언행은 정제된 교시(敎示)로 가공되고, 그 이미지는 신성화된 문법으로 재구성되어 인민에게 투사된다. 그럼에도 이 거친 발화를 가감 없이 공개한 것은, 지도자의 폭언이 그의 권위를 손상시키기는커녕 오히려 공포정치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기제로 활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즉, 지도자의 분노와 모욕적 언행은 은폐해야 할 결함이 아니라, 복종을 강제하는 통치 언어로 공식화된 것이다.

#### 4. 세습 독재가 소거한 ‘인간’ 김정은

전 노동당비서 황장엽은 ‘북한은 초등학생을 앓혀놔도 자동으로 굴러간다.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류현우, 2025: 295). 1974년에 공표되고, 2013년, 2021년 개정된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 제3조는 수령의 권위와 당의 권위를 절대화하고 결사옹위할 것을 명시한다.<sup>29</sup> 10대 원칙은 수령체제 운영의 핵심 메커니즘으로서, 수령주의를 인간과 사회, 제도에 구현하는 초헌법적 율법(律法)으로 기능한다. 북한 내 빈번한 숙청은 이 원칙을 근거로 집행되며, 이를 통해 수령독재가 실현되고 공고화된다. 김정은은 장성택 숙청 후 2014년부터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의 명분 아래 반공파투쟁의 전면적 전개를 지시했다(류현우, 2025: 342). 결국, 독재자를 완성하는 것은 개인의 기질보다 시스템의 강제다.

만약 김정남이 후계자가 되었다면 그 역시 독재자가 되었을까? 김정남이 독재자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후계구도에서 탈락했기 때문이다.

<sup>28</sup> SBS, 2026. 2. 1., “‘더 늦기 전에 네발로 나가’ 공개 질타한 김정은…. ‘즉각 처형!’ 탄광까지 뛰는 간부들”, <https://www.youtube.com/watch?v=Fq3R8080VPE>(검색일: 2026. 2. 20.).

<sup>29</sup> “지난해에 우리가 당의 믿음과 배려를 저버리고 당중앙의 권위에 도전하려던 자들을 제때에 축출한 것은 우리 당을 강화하는데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김정일이 말한 ‘당중앙’은 그 자신이고, 당중앙의 권위에 도전하려던 자들은 1981년 말에 숙청된 그의 종합대학 동창생들이다. 김덕홍, 2015, 『나는 자유주의자이다』, 서울: 집사재, pp. 92-93; “당이란 아버지 원수님/ 당이란 지도자선생님”, 아동가요 <내 동생 물음에 대답했지요>, 김승길 작사, 김병수 작곡, 1985.

김정남은 수령 일가 안에서 은폐되어야 했던 태생적 한계부터 스위스 유학에 이르기까지 김정은이 겪은 모든 신성화의 과정을 선형적으로 경험한 인물이다. 동일한 시스템 안에서 형성된 두 존재의 엇갈린 운명은 수령이라는 역할이 한 개인의 인간성을 어떻게 소거하고 독재자로 변형시키는지 보여주는 실증적 사례다. 만약 김정은이 후계자로 선택되지 않았더라면 평소 탐닉하던 농구를 즐기며 독재자의 아들이라는 수식어에 머물렀을 것이다. 후계자로 낙점되지 못한 김정철은 은둔하는 예술 애호가로 남을 수 있었다.

그러나 시스템이 독재자를 만든다는 논리는 시스템에 포획될 만한 기질을 가진 자가 선택되어야 한다는 전제 위에서 성립한다. 김정남의 인도주의적 감수성,<sup>30</sup> 김정철의 유약함과 자기 통제력의 상실은<sup>31</sup> 수령 체제가 요구하는 냉혹한 지배자의 자질과 양립할 수 없었다. 후계자의 선택은 단순한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 독재자적 기질의 선별이었다. 김정은은 그 기질을 가진 아들이었기에 선택되었고, 선택되었기에 독재자로 완성되었다.

혈통승계라는 결정론적 굴레는 김정은의 운명을 확정지었으며, 일상의 신격화는 그의 자아를 잠식하고 인격을 왜곡함으로써, 본래적(authentic) 자아와의 분열을 야기했다. 권력의 정점에서 고립된 존재, 독재자로 기능하는 것 외에 평범한 삶을 박탈당한 상태, 이것이 바로 본 연구가 규정하는 ‘잃어버린 인간’ 김정

30 “정남이 서재에도 남조선 동화책들이 있었다. ... 남조선 어린이의 가난한 생활을 기록한 일기 ‘저 하늘에도 슬픔이’라는 책도 있었다. 어느 날 여자 관리원들에게 오늘은 내가 책을 읽어주겠다며 내보낸 뒤 ‘저 하늘에도 슬픔이’를 읽어줬다. 사흘을 읽어줬는데, 첫날 20분 정도 읽어주다가 정남이의 기척을 살폈다. 그 시간이면 잠이 들기 때문이다. 그런데 잠은 안 자고 자꾸 뒤척이는 것이었다. 왜 뒤척거리나 얼굴을 쳐다봤더니 흘쩍거리고 있었다. ‘안 자고 있구나’ 했더니 나를 향해 돌아눕는데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러더니 ‘이윤복이 지금 뭐하고 있을까? 아직도 배가 고플까?’ 하는 것이었다. 정남이는 이어 ‘내가 뭘 보내주면 안 되냐, 음식도 좋고 돈도 좋고’라고 중얼거렸다. 이윤복의 이야기는 그 이후에도 한참 기억에 남았나보다. 놀다가도 문득문득 부관들에게 ‘이윤복이라는 아주 불쌍한 어린이가 있었는데...’라며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었다. 한참 후에 정남이와 차를 타고 병원에 가는 데 보통강변에 옷을 남루하게 입은 애가 걸어가는 것을 본 정남이는 ‘저 애는 이윤복이 같네’라고 중얼거리는 것이었다. 이윤복은 내게도 강렬한 기억을 남긴 사람이었는데 얼마 전 죽었다는 신문기사를 읽었다.” 이한영, 1996, p. 43.

31 “김정일은 생전 차남 김정철에 대해서는 ‘그 녀석은 안돼. 계집에 갈아서’라고 말했다.” 후지모토 겐지, 2010, p. 164; “2017년 출장을 겸해 평양에 들어갔을 때 오랜만에 만난 외무성 친구가 내게 말했다. ‘김정철의 아편중독 사실이 사회에 새지 않도록 국가보위성이 별별 고생을 다 했다. 장군님도 사람 구실 못할 놈이라며 꾸짖곤 하셨지.’” 류현우, 2025, p. 268.

은의 본질이다. 김정은은 남북 대화가 활발하던 2018년 남측 대표단을 만나 비핵화 의지를 피력하며 “비인간적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다. 믿으라”고 강조했다.<sup>32</sup> 이 발화는 자신을 비인간적 존재로 규정하는 외부세계에 대한 자각인 동시에 수령이라는 신의 역할에 함몰되어 파괴된 인간성을 회복하고 싶다는 갈망의 표현이다. 국제사회는 그를 독재자로, 북한 인민은 신격화된 수령으로 투사할 뿐, 인간 김정은의 자리는 없다. 특히 ‘믿으라’는 간청은 신뢰받지 못하는 자의 절박함인 동시에, 절대권력의 속성상 결핍될 수밖에 없는 상호 신뢰를 향한 근원적 갈구이다. 김정은의 눈물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다. 그것은 강제된 신성과 억압된 인성 사이 간극에서 터져 나오는 인간적 비명이다.

## 5. 분단체제가 강요한 고립

북한 지도자에게 분단은 실존적 위협이다. 김정은은 2025년 9월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대한민국 헌법 3조는 흡수통일 의지가 담겨있고, 우리 국가에 가장 적대적인 태생적 본성을 성문화한 것’이라고 규정했다.<sup>33</sup> 실제로 대법원은 “우리 헌법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는 영토조항을 두고 있는 이상 북한 지역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에 효력이 미치므로 북한 지역도 당연히 대한민국의 영토가 되고, 북한 주민 역시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에 포함”된다고 판시한 바(2011두24675) 있다.

이러한 법리 규정은 정치적 현실로 구체화된다. 2022년 7월 18일 통일부는 북송어민 영상을 공개했다.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은 경계선에서 저항하는 북송 어민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형장으로 떠밀려 걷는 수인’으로 규정하며, 북한 인민은 언제든지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 존재임을 환기했다. 이러한 인식은 법적 체계로 뒷받침된다. 북한 이탈주민은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과 국적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혈통주의 원

<sup>32</sup> 경향신문, 2026. 1. 18., “김정은, 남측에 ‘비인간적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아’, 미국에 불만”, <https://v.daum.net/v/20260118165103927>(검색일: 2025. 12. 19.).

<sup>33</sup> 연합뉴스, 2026. 1. 19., “北, 계급교양관에 ‘헌법 3조’ 적어놓고 ‘한국은 제1적대국’”, <https://www.yna.co.kr/view/AKR20260119068600504>(검색일: 2026. 1. 20.).

칙에 근거하여 이미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된다. 남한에 입국하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공식적으로 확인받게 된다.

전 쿠바주재 북한 참사관 이일규의 망명은 국제무대에서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법적 지위가 즉각 효력을 발휘한 사례이다. 이일규는 가족과 함께 제3국 공항을 경유하여 탈출을 시도했다. 그가 현지 대한민국 대사관에 망명을 요청했을 때, 해당 국가는 정치적 망명을 불허하고 쿠바로 송환하려 했다. 이일규가 외교관의 특권을 주장하는데도 묵살하고 공항 당국이 그와 그의 가족을 쿠바로 강제 연행하는 순간 대한민국 대사가 현장에 도착하였다. 그는 “헌법에 따라 이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며 우리 정부가 보호한다”라고 선언했다. 이일규와 그의 가족을 연행해가던 공항 요원들은 “불빛 아래 사라지는 바퀴벌레처럼” 사라졌다.<sup>34</sup> 이 사건은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이 단순한 법리가 아니라 국제 외교 현장에서 실질적 보호 권한으로 전환되는 순간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실은 김정은이 직면한 체제 흡수의 공포가 모든 계층에 걸쳐 현실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분단체제에서는 민(民)을 중심에 놓고 한 명이라도 자기편에 끌어당기려는 메커니즘이 작동한다. 남북한 모두 국가의 3요소를 갖추지 못한 미완의 국가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국가의 3요소를 완성하려면 상대방 영토와 민(民)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가 나선다. 이 과제를 완수하는 것은 곧 한반도 전체를 대표하는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이 된다. 때문에 북한을 이탈하여 남한으로 입국하는 행위는 월경(越境)의 차원을 넘어선다. 궁극적으로 김정은의 통치기반이 남한의 법적 권위 속으로 흡수·소멸되는 사태를 의미한다. 특히 남한의 압도적인 경제력은 북한의 인적 자원을 견인한다. 남한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의 송금은 북에 남은 가족들에게 대안 체제의 경제적 풍요를 간접 체험하게 한다. 김정은이 스위스 유학 시절 경험한 자본주의 체제는 북한 인민이 언젠가 자신에게 요구할 수 있는 삶의 기준을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그는 남한이라는 대안 체제

<sup>34</sup> 채널A, 2025. 2. 20., “북한 엘리트 외교관 이일규의 망명을 위한 쿠바 탈출기”(이만갑 684회), <https://www.youtube.com/watch?v=aPSNQFJTUKU>(검색일: 2026. 2. 7.).

가 북한 엘리트와 인민에게 행사하는 유혹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다.

분단체제에서는 내부의 동요와 외부의 유인이 결합하여 체제를 전복할 수 있는 잠재적 위협이 상존한다. 김정은이 직면한 공포의 핵심은 엘리트층이 자신을 제거하고 남한과 결탁할 시나리오가 구조적으로 용이하며 매력적이라는 점에 있다. 만약 쿠데타로 그를 축출하고 남한에 통일을 제안한다면, 그들은 국제적 영웅으로 부상하며 통합 체제에서 새로운 기득권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1997년 노동당 비서 황장엽과 김덕홍의 망명은 이러한 시나리오가 편집증적 망상이 아닌 현실적 위협임을 입증한 사건이었다.

김정은이 직면한 공포는 무형의 위협만이 아니라 물리적 타격으로 구체화된다. 매년 실시되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은 북한 지도부를 겨냥한 참수 작전과 초정밀 타격을 포함하여 미국의 군사적 위협을 가시화한다. 베네수엘라를 급습해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한 군사작전은 미국에 의한 정권 교체 및 참수 작전이 현실적 위협임을 확인해주었다. 한반도의 종결되지 않은 전쟁상태는 북한 지도부의 생존위기 의식을 강화하며, 내부의 사소한 불충조차 외부 세력과의 결탁 징후로 의심하게 만든다. 이에 따라 김정은의 숙청은 구조적 합리성을 획득한다. 내부 엘리트가 남한의 국민적 지위를 갈망하거나 미국의 힘을 빌려 정권을 교체하려 할 때 지도자의 생명 또한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sup>35</sup>

따라서 김정은의 숙청은 배신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예방적 소멸의 성격을 띤다. 대공고사포 사격이나 화형과 같은 극단적 잔혹성은 잠재적 배신자들에게 가해지는 시각적 공포를 극대화한다. 2019년 2월 외무성 미국 주재 외무성 관료 5명이 ‘미제의 고용 간첩’으로 몰려 처형되었으며, 북한 역사상 전례 없

<sup>35</sup> “앞으로 남한을 주제로 하여 우리 민족이 통일될 것은 틀림없는데 이제 와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보다는 오히려 남쪽과 손을 잡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 이왕 목숨을 버릴 바에는 남쪽 사람들과 연계를 맺고 싸우다가 죽는 것이 북한 동포들을 구원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었다.” 황장엽, 2006, p. 353; “우리는 창문에 두툼한 모포를 친 방안에서 촛불을 마주하고 북한 인민의 모든 불행과 고통의 화근인 김정일을 반드시 제거할 것을 맹세했었다. 우리는 한편 아래의 약속도 깊이 다졌었다. ‘앞으로 김정일 정권을 붕괴시킨 후 소리소문없이 조용히 숨어서 평범하게 살자.’ 그들 중 여러 사람은 이미 우리의 정치 망명 이후 김정일에 의해 너무나도 애석하게 자유의 제단에 흠뻑 려졌다.” 김덕홍, 2015, pp. 303-306.

는 ‘외무성 간첩 사건’으로 기록되었다.<sup>36</sup> 북한에서 일반적인 처형방식은 시신보존이 가능한 총살이었다. 그런데 김정은 시대 처형은 화형과 대공고사포 사격으로 진화했다. 류현우에 의하면 그 첫 사례가 장수길·리룡하 처형이었다고 한다. 이러한 중세적 형벌은 육신을 비산(飛散)시켜 존재의 흔적조차 지워버리는 데 목적이 있으며, 역설적으로 김정은의 극단적 불안과 권위의 취약성을 방증한다.

## IV. 고립과 불신의 혈연적 방어: 가족으로의 회귀

### 1. 딸, ‘주애는 나의 포도당’

신뢰는 상호성에 기초한다. 김정은 체제에서 반복되는 엘리트 숙청과 공포정치는 측근과의 신뢰를 파괴했고, 지도자 자신을 정서적으로 고립시켰다. 김정은이 의존할 수 있는 곳은 혈연관계로 국한되었다. 이설주, 김주애, 김여정으로 대표되는 가족은 김정은에게 단순한 혈육이 아니라, 수령의 역할에서 벗어나 인간 김정은으로 회귀할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였다.

지도자의 고독은 자녀 이름에도 투영된다. 김정은이 딸의 이름을 ‘보편적 사랑을 받는 아이’라는 의미의 ‘주애(周愛)’로 지은 점은 주목할 만하다(류현우, 2025: 257). 김정은의 가족 의존성은 그가 측근들에게 한 고백에서 구체화된다. 류현우

<sup>36</sup> “처형 당일 외무성과 대외경제성, 대외문화연락위원회 등 대외부문 일꾼들이 기관별로 버스를 타고 평양 교외 강건종합군관학교 사격장으로 이동했다. 항일투사 강건(북한군 총참모장. 1950년 9월 전사)의 이름을 딴 이곳은 인민군대에서 군관을 양성하는 사관학교다. 북한 당국은 오래전부터 이곳을 공개 처형장소로 써왔고, 주민과 간부에게 일벌백계의 효과를 노렸다. 일꾼들은 모두가 누군가 총살될 것을 직감한 채로 부서별로 자리에 앉았다. 때가 겨울인지라 모두 손을 비비며 추위를 달래고 있는데, 외무성 부상 한성렬 등 5명이 끌려 나왔다. 이들의 입에는 자갈이 물리고 머리에는 흰 자루가 씌워져 있어 누구인지 분간하기 힘들었다. 얼마나 잔인한 고문을 받았는지 온몸이 피멍으로 얼룩져 있었다. 자갈을 문 입으로는 피가 섞인 침이 흘러내릴 정도로 모두가 혼이 나간 상태였다. 그들에게 사형문이 낭독됐다. 핵심요지는 당과 국가의 기밀을 해외정보기관에 팔아넘겼다는 것이었다. 이어 ‘민족 반역자 000놈을 사형에 처한다’는 말과 함께 14.5mm 4신 고사기관총이 차례로 불을 뿜었다. 처형 장면을 지켜본 외무성 직원과 대외부문 일꾼들은 극도의 공포와 충격에 사로잡혔고, 많은 이들이 한동안 악몽에 시달렸다고 했다.” 류현우, 2025, pp. 376-377.

의 회고록에 따르면 2014년 1월 8일 김정은은 자신의 생일 30주년이 되는 날 장인을 포함한 고위 간부 4명을 초대소로 초청했다. 이들과 사우나를 마친 뒤 이어진 저녁 식사 자리에서 김정은은 “국정 운영을 혼자 맡아 하자니 정말 힘에 부친다. 모든 걸 다 집어치우고 싶을 때도 있다. 집에 들어가면 우리 주애가 막 기어나와 내 품에 안기는데, 내가 포기하면 앞으로 저 아이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나 싶어 온 정신을 가다듬지. 저 애의 미래를 위해서도 내가 나약해지면 안 되겠구나 하는 자각으로 나를 다잡아. 주애는 나에게 포도당이야”라고 토로하였다(2025: 257-259).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포도당이 필수 에너지원이듯, 딸 김주애는 고립된 지도자의 정서적 수액이다. 지배와 피지배, 숙청과 복종이라는 위계적 불신 관계에서 유일하게 예외인 자녀를 통해 김정은은 아버지라는 인간적 정체성을 회복한다. 이러한 사적 의존은 가족정치로 전이되는 심리적 시발점이 된다.

## 2. 신성의 인간화: 부녀가 연출하는 주석단의 친밀감

김정은은 사적 영역의 부녀애를 공적 무대에서 보여줌으로써 자애로운 어머니 이미지를 구축한다. 수백만 군중과 미디어의 시선이 집중된 광장 주석단에서 부녀 간 애정 표현은 수령의 신성성을 해체하고, 인간적 면모로 치환하는 전례 없는 통치술을 보여준다. 2023년 2월 인민군 창립절 열병식에서 김주애는 광장 군중의 함성이 울리는 가운데 김정은의 얼굴을 어루만지면서 국가적 의례의 엄숙함을 정서적 친밀감으로 전환시켰다. 2026년 신년경축 모임에서는 주석단 중앙석에 자리한 김주애가 새해를 맞는 카운트다운 때 김정은의 볼에 입을 맞추는 모습이 연출되었다. 김정은이 절대권력자이기 전에 자식을 거느린 한 가정의 아버지임을 선포하는 극적인 장면이었다.

이러한 친밀감의 전시는 김정은의 생애사적 결핍에 대한 심리적 보상으로 해석된다. 가명과 은둔으로 점철되었던 지도자 자신의 청소년기와 대비하여 딸에게는 세계가 주목하는 주석단에서 공개적 지위와 사랑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김주애를 ‘존귀하신 자제분’이라는 칭호와 함께 무대 중심에 세운 것은 권력의 정통성을 미래 세대로 확장하는 정치적 포석이다. 한편, 혈연적 친밀감에 대한 지

나친 집착은 절대권력의 과시인 동시에, 고독한 지도자가 유일하게 의탁할 수 있는 혈연적 도피처의 협소함을 시각적으로 증명한다. 공식 석상에서 반복되는 과도한 애정표현은 역설적으로 체제 내부에 잠재된 불안과 위기의식을 투영한다는 지적도 있다.<sup>37</sup> 김정은의 유일한 안식처였던 가족이 정치 무대 전면에서 호출되는 순간, 그가 갈구하던 평범한 가족의 온기는 고도의 통치기술로 편입되어 본연의 순수성을 상실하게 된다.

김주애의 조기 등판 이후 국내외 언론은 파격적인 행보와 호칭을 근거로 그녀를 4대 후계자로 가정사실화하는 데 매몰되어 왔다. 이는 북한 권력의 특수성을 간과한 과잉 해석이다. 김정은에게 김주애는 후계자이기 전에 정서적 결핍을 메우는 의존 대상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특히 아들이 아닌 딸의 공개는 후계 수업에 따른 권력 누수를 방지하면서도, 대외적으로 자애로운 부성애를 과시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이다.

이러한 논리는 김정일 시대 김설송의 사례를 통해 입증된다. 김정일은 생전 김설송을 ‘저 애가 바지만 입고 태어났어도 큰일을 맡길 애’라고 평가했다(류현우, 2025: 265). 그럼에도 가부장제 사회인 북한에서 실질적 권력 승계는 남성에게만 허락되었다. 이는 딸에 대한 지도자의 신임과 후계 구도가 분리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정치적 생존의 측면에서 딸은 아들보다 안전한 선택지다. 아들의 조기 공개는 치명적 위험을 내포한다. 김정남과 김정은이 철저히 은폐되어야 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후계자로 지목된 아들은 즉각 후계경쟁과 권력 투쟁의 표적인 동시에 선제적 제거 대상이거나 분단체제의 특성상 외부의 공작 목표가 된다. 즉, 아들의 존재 자체가 현 지도자의 종말을 예고하는 시한폭탄이 되는 것이다. 이에 비해 가부장체제의 한계상 승계 가능성이 낮은 딸은 권력의 긴장을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백두혈통의 미래를 선전할 수 있는 무해하고 효과적인 통치기술로 기능한다.

김주애를 유년기부터 대중에게 노출시키는 전략은 그녀의 성장 과정을 공유하게 함으로써, 인민과 정서적 친밀감을 형성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김정은

<sup>37</sup> 동아일보, 2026. 1. 6., “김정은·주애 ‘볼 뽀뽀’... 과도한 스킨십, 체제 왜곡 불안 드러내”,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60106/133102971/2>(검색일: 2025. 12. 15.).

자신이 은폐된 존재로 살다가 갑자기 후계자로 등장했을 때 겪었던 생경함과 초기 정당성 확보의 어려움은 자녀를 조기에 공개하는 동기가 되었을 것이다. 유년기부터 공유된 성장 서사가 지닌 정치적 효과는 박근혜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그녀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핵심동력은 박정희 향수와 더불어, 온 국민이 그녀의 성장 과정을 공유하며 쌓은 친밀감이었다. 결국, 김주애의 전면 등장은 후계자 수업이기 전에, 사면초가에 몰린 지도자가 딸을 통해 얻는 심리적 위안이 정치적 행보로 전이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 3. 이설주와 김주애 등장으로 완성된 가족국가의 3위 일체

북한은 건국 이래 수령을 아버지로 하는 가족국가를 표방해왔다. 그럼에도 오랜 기간 수령의 배우자, 즉, 어머니의 공적 부재라는 구조적 결함을 내포했다. 인민을 자녀로 호명하는 수사에도 불구하고 주석단에는 아버이 가족의 완전한 형상이 부재함으로써 가족국가 담론을 구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가족국가 내 어머니 공백은 사후 혁명의 어머니로 신화화된 김정숙에 의해 점유되었다.

가족국가 어머니 부재는 수령 가족사의 복잡성과 정치적 금기에서 비롯되었다. 김일성의 부인 김성애는 후계 갈등 과정에서 김정일에 의해 공식 석상에서 배제되었다. 김정일은 무오류의 수령이라는 신성불가침한 영역에 머물러야 했기에 인간적 취약점이 드러날 수 있는 복잡한 가족관계를 은폐와 신비주의 전략 뒤로 숨겨왔다. 고용희는 출신성분과 비공식적 지위 때문에 그녀를 혁명의 어머니로 공식 추앙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2013년 노동당 내부에서 기록영화 “위대한 선군 조선의 어머니”를 통해 고용희 이상화를 시도하다가 중단되었다.<sup>38</sup> 이처럼 수령의 가정사가 금기의 영역에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은 가족국가 이데올로기의 불완전성을 고착화하는 요인이었다.

이설주의 등장은 가족국가 담론에서 결여되었던 어머니의 자리를 복원함으로써 김정은식 가족정치의 전환점을 이룬다. 이는 김정은이 안고 있는 생모 고

<sup>38</sup> 중앙일보, 2024. 6. 5., “고용희 담긴 기록물 없애라’… 김정은 생모 지우기 나선 北”,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54270>(검색일: 2026. 1. 25.).

용희에 대한 정통성 문제를 우회하여 지도자의 권위를 도덕적으로 재구성하려는 정치적 포석이기도 하다. 2012년 7월 26일 공식 석상에 최초로 등장한 이설주를 통해, 인민은 현대적 복장으로 지도자와 동행하는 실제적 국모를 육안으로 확인하게 되었다.

이설주는 김정은의 가부장적 권위와 독재자의 폭력적 면모를 부드러운 여성성으로 희석하는 정서적 완충기제로 기능한다. 그는 김정은과 함께 쇼핑백을 들고 가정집을 찾아가 온돌방에 앉아 담소를 나누고, 직접 부엌에 나가 설거지도 하였다. 이러한 행보는 젊은 부부가 시집이나 처가를 찾아가는 일반인의 모습과 다르지 않으며, 지도자의 권위를 미시적 일상으로 하강시켜 인민성을 부각한다. 이를 통해 오랜 기간 공백으로 남겨졌던 가족국가의 모성적 기능을 복원하여 가족국가 담론에 논리적 완결성을 부여한다. 이설주의 정서적 완충이 김정은의 동생이면서 대리인이자 보좌관으로 실무를 장악하는 김여정의 모습과 병치되면서, 체제는 감성적 유대와 혈연 중심의 권력 구조라는 이중적 견고함을 완성한다.

이설주에 이어 딸 김주애의 공식 무대 등장은 아버지 신화를 가족적 유대와 친밀성으로 구체화하고 인민에게 정서적 귀속을 유도한다. 2026년 3월 8일 국제부녀절 기념공연은 지도자·가족·국가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가족국가의 삼위일체 서사를 의례적 공간에서 극적으로 구현한 사례로 주목된다.<sup>39</sup> 공연장에는 김정은이 부인 이설주, 딸 김주애와 함께 등장하였다. 김정은은 격식을 갖추지 않은 점퍼 차림으로 객석에서 일어나 연설 전후 청중을 향해 허리를 굽혀 인사하였다. 최고 존엄을 위한 전용 연단도, 연탁도 없었다. 더욱이 마이크 앞에 선 그의 손에는 표지를 씌워 정중히 봉정된 격식 있는 연설문 대신, 주머니에서 꺼내든 듯 접힌 자국과 글씨가 고스란히 드러난 A4용지 몇 장이 들려있었다. 북한 인민은 주석단의 권위적 지도자가 아니라 일반 연사와 다를 바 없는 탈권위적 지도자의 면모를 목도하게 된 것이다. 이 장면은 권위란 높은 곳에서 내려다볼 때가 아니라 낮은 곳에서 함께 설 때 오히려 더 깊이 내면화된다는 역설을 시사

<sup>39</sup> supersuhui, 2026. 3. 9., “3.8 국제부녀절 기념공연 성황리에 진행”, [https://www.youtube.com/watch?v=oSru4V8k\\_n0](https://www.youtube.com/watch?v=oSru4V8k_n0)(검색일: 2026. 3. 9.).

한다. 이날 공연의 백미는 꽃다발 증정이었다. 자식 세대를 대표하는 소년단원들은 김정은과 김주애를 제외하고 그의 양옆에 앉은 이설주와 최선희를 비롯한 여성들에게만 꽃다발을 증정하였다. 이 순간 김정은은 최고 권력자이기에 앞서 한 어머니의 아들이자, 한 여성의 남편으로 자리매김한다. 이와 함께 김주애도 소년단원들과 같은 자식 세대의 층위에 편입된다. 이는 모성과 여성성을 국가적 가치의 중심에 놓는 정치적 메시지이며, 지도자 가족을 일반 가족과 동렬에 놓고 가족국가의 수평적 연대감을 의례의 형식으로 상징화한다. 이로써 지도자·가족·국가가 하나로 귀결되는 가족국가의 서사가 완성된다.

이처럼 지도자 가족의 공적 배치는 북한 체제의 정당성을 가족국가 서사로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기제로 기능하며, 김일성·김정일 시대 자녀 동반 현지도가 비공개 영역에 머물렀던 것과 선명한 대조를 이룬다. 2026년 신년경축 모임에 참가하기 위해 5·1경기장에 집결한 군중 앞에서 김정은 가족은 물론, 김여정과 현송월 등 핵심 간부들까지 가족을 동반하여 손자·손녀를 데리고 주석단에 배석하였다. 지도자 가족과 엘리트 가족이 같은 의례적 공간에 나란히 병치됨으로써, 백두혈통과 엘리트 세대는 분리될 수 없는 운명공동체로 가시화된다. 이는 김주애의 등장을 정당화하는 동시에, 가족국가 서사가 지도자 가족을 넘어 엘리트 전반의 결속 논리로 확장되고 있음을 드러낸다. 이러한 감성정치 전형은 이미 포착된 바 있다. 2014년 6월 만경대혁명학원 학생들이 자신을 향해 “아버지!”라고 외치자 걸음을 멈추고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는 김정은의 모습은 그가 혈연적 유대의 중심에 서 있음을 보여준다.<sup>40</sup>

<sup>40</sup> 경향신문, 2014. 6. 7., “北 김정은, 만경대혁명학원서 ‘눈물’ 보여”, [https://www.khan.co.kr/article/201406070902241\(검색일: 2026. 1. 3.\)](https://www.khan.co.kr/article/201406070902241(검색일: 2026. 1. 3.)).

## V. 눈물의 정치적 소통: 독백과 공명

### 1. 숙청과 추모 사이: 눈물로 은폐되는 폭력

북한의 수령주의는 인민의 시선을 수령에게 고정시킴으로써 체제 구심력을 유지한다. 그러나 반복되는 숙청은 사회 전반에 공포를 내면화하며, 구심력을 약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체제의 유연성과 충성심을 침식하는 부작용을 야기한다. 이를 상쇄하기 위해 수령을 인민의 고통에 공명하는 자애로운 아버지로 재현하는 감정의 정치적 동원 기제가 작동한다.

2022년 기록영화 <태양의 가장 가까이에서>에서는 이러한 감성정치 전형을 보여준다. 영화는 임종을 앞둔 현철해 앞에서 오염하고, 직접 관를 메고 현철해의 시신을 운구하고, 그의 묘에 장미 한 송이를 놓고 묵도하는 김정은을 동지애의 화신으로 부각한다. 그러나 이 애도적 서사의 이면에는 숙청되고 처형된 수많은 고위 간부들의 공백이 중첩되어 심각한 부조화를 이룬다. 이 영화가 주는 메시지는 '수령에게 충성하면 현철해처럼 수령이 기억하는 혁명전사로 남는다'라는 보상의 약속이다.

김정은의 눈물은 끊임없는 숙청으로 파괴된 사회적 신뢰를 봉합하는 기능인 동시에 스스로 파괴해버린 인간적 유대관계에 대한 사후적 애도이기도 하다. 이 지점에서 독재자 김정은과 인간 김정은이라는 두 자아의 실존적 분열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김정은은 류홍근을 반혁명분자로 규정하고 처형을 직접 지시하고도, 그의 어머니 황순희가 사망하자 조문했다. 이설주와 함께 장례식장에 안치된 황순희의 시신 앞에서 그녀를 혁명의 원로로 대우하며 애도했다. 그의 행위는 가해의 기억과 추모의 감정을 철저히 격리하는 인지적 부인, 혹은 분열된 인격의 단면을 보여준다. 독재자의 자아로 타인을 파괴하면서 인간적 자아로 유대를 갈구할 때 발생하는 이 괴리야말로 김정은이 직면한 고립의 본질이다. 결국, 김정은의 눈물은 분열된 자신의 인격을 수습하고 폭력적 통치를 신성한 부성애로 전환하는 감정의 통치(affective governance) 기술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 2. 전지전능함의 포기: 이해를 구하는 독재자

전통적 수령제에서 지도자와 인민의 관계는 국가배급체계를 매개로 한 물질 시혜와 충성의 교환구조를 기반으로 한다. 그러나 김정일 시대부터 현재까지 국가배급체계는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수령신화에 치명적 손상을 입혔으며, 지도자는 정책 실패의 책임이 자신에게 집중될 것을 우려하게 되었다. 김정은은 2019년 하노이 회담에서 민생과 관련한 대북제재를 해제해 달라고 미국 측에 요구했으나 협상은 결렬되었고, 이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통일부는 정례브리핑(2023/2/20)에서 북한 일부 지역에서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으며 식량 상황이 심각하다고 밝혔다.<sup>41</sup>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 이후 아사자가 발생했다.<sup>42</sup> 지금 북한이 겪고 있는 경제난과 고립 양상은 류현우의 회고록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2017년 5월 내가 걸프 지역 북한 노동자들의 귀국 조치와 관련한 대책 회의를 하기 위해 평양에 출장을 갔을 때 일이다. 장인은 ‘노동당 39호실도 포괄적 유엔 대북제재의 후과로 외화벌이가 반 토막으로 줄어들었다’며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고했다’고 말했다. 김정은은 ‘실장아바이, 조만간 해결할 수 있으니 조금만 견디어 주시오’라고 이야기했다고 한다. 장인의 말로는 금, 아연, 석탄 등 39호실의 주력 수출품의 판로가 막혔다. 생산해도 수출할 수 없는 데다 설령 수출한다 해도 은행들이

<sup>41</sup> 국민일보, 2023. 2. 20., “심상찮은 북(北)… 일부 지역서 아사자 속출, 식량난 심각”,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977109>(검색일: 2026. 1. 22.).

<sup>42</sup> “수도 평양에 사는 여성 주민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집에서 아사한 일가족 3명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지연’이라는 이름의 이 여성은 ‘배급받은 물을 가져가라고 지인 집 문을 두드렸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당국이 집 내부로 들어가 보니 모두 사망한 채 발견됐다고 한다. … 중국 접경 지역 근처에서 건설 노동자로 일한다는 찬호씨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식량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은 탓에 자신이 사는 마을에서만 이미 5명이 굶주림으로 사망했다고 전했다. … 국경을 넘나들며 밀수품을 팔며 생계를 꾸리는 다른 여느 업자처럼 명숙씨 또한 소득이 크게 줄었다. 명숙씨는 이렇게 가족들이 굶었던 적이 없었다며, 사람들이 너무 배가 고프다 나머지 자기 집에 찾아와 문을 두드린 적도 있다고 했다. 한편 지연씨는 집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더 이상 생계유지가 힘들어 죽기 위해 산에 들어가 실종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BBC, 2023. 6. 15., “북한 내부 주민과의 BBC 독점 비밀 인터뷰 ‘식량 부족해 이웃들 굶어 죽어’”,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n3e4v9lmvro>(검색일: 2025. 12. 28.).

SWIFT에서 퇴출돼 대금을 받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2025: 159).

경제적 파탄으로 체제 위기가 심화될수록 인민의 시선은 지도자에게 집중된다. 그 시선은 모든 성과와 업적을 수령의 영도와 위대성으로 귀결시키는 수령론에 따라, 수령의 무오류성에 의구심을 품고 책임을 묻는다. 이에 대한 김정은의 책임 회피 전략은 ‘당중앙’이라는 익명적 대리 기표의 활용에서 드러난다. 김정은은 자신의 실명 대신 ‘당중앙’이라는 지칭을 사용할 것을 강조하며 이를 시정하지 못한 선전일꾼을 질타하였다.<sup>43</sup> 김정은의 실명이 강조될수록 그에게 부과되는 책임의 무게 또한 가중되기 때문이다. 이 사례는 절대권력에 수반되는 절대 책임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려는 정치적 자기보호로 해석된다. 즉, 지도자는 집단적 시스템의 외피인 ‘당중앙’ 뒤로 자신을 은폐함으로써 정책 실패의 책임 소재를 불분명하게 만드는 ‘책임의 익명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결국, 김정은의 실명 사용에 대한 거부와 ‘조금만 견뎌달라’는 지도자의 읍소는 양면성을 띤다. 수령신화가 현실의 결핍과 충돌하며 그 권위를 침식할 때, 김정은은 전지전능한 신의 자리를 포기하고 인민에게 고난의 이해를 구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통치 기조를 수령이 인민에게 베푸는 시혜적 통치에서 인민에게 인내를 간구하는 읍소 전략으로 전환한 것이다. 2017년 신년사에서 김정은은 “능력이 따라주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자책 속에 지난 한 해를 보냈다”고 고백하며 자신의 한계를 시인했다. 지도자의 이례적인 자기비판은 무오류의 권위를 훼손하기보다 인민에게 정서적 부채감을 소환한다. 북한 매체는 “원수님께서 우리들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자책하시는 신년사를 하실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충성을 다짐하는 지방 간부들의 모습을 소개하였다.<sup>44</sup> 이는 지도자의 낮은 자세가 창출한 권위의 공백이 인민의 참회와 자발적 예측으

<sup>43</sup> “김정은은 전화로 왜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통신에 아직도 ‘김정은 동지’라는 내 이름을 신느냐, 인민이 ‘당중앙’이라는 표현만 써도 나를 가리키는 줄 안다. 내가 모든 일을 다 책임질 수는 없지 않느냐. 내 이름 대신 ‘당중앙’을 쓰라고 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시정하지 않느냐며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이 제 역할을 못한다고 욕설을 퍼붓기까지 했다.” 류현우, 2025, p. 286.

<sup>44</sup> 뉴스1, 2017. 1. 16., “北 김정은은 신년사 자책 구절에 ‘수해’ 주민들도 자아비판”, <https://www.news1.kr/diplomacy/unikorea/2886913>(검색일: 2026. 1. 7.).

로 채워지고 있음을 방증한다. 인민을 향한 김정은의 읍소는 2020년 열병식에서의 눈물과<sup>45</sup> 고열 속의 방역 지휘<sup>46</sup>라는 서사로 변주되며, 비밀에 부쳤던 지도자의 건강 상태마저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는 고통의 공유 패러다임을 공식화했다.

김정은 체제에서 지도자의 무오류성 신화는 자기 비판적 수사라는 이례적인 통치 기제로 대체되고 있다. 이러한 통치술은 신성을 포기하는 대신, 인민과 함께 고뇌하는 ‘인간적 수령’으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대북제재와 그로 인한 물적 자원의 고갈로 민생문제 해결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지도자는 결핍과 무능력을 진정성 있는 고백으로 제시함으로써 인민으로 하여금 지도자의 고통에 응답해야 한다는 정서적 부채의식을 강화한다. 여기서 지도자의 눈물은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서 기인한 좌절의 산물이다. 유학시절 목격한 현대화된 국가모델을 포부로 삼았던 김정은의 이상<sup>47</sup>은 지도자 개인의 개방적 의지를 허용하지 않는 수령 독재 시스템이라는 경직된 구조 안에서 무력화되었다.

김정은은 2018년 남측 대표단을 만나 비핵화 조치에 대한 미국의 태도에 불만을 드러내면서 비핵화와 북·미 대화 의지에 대해 “입이 닳도록 말했다”고 하였다.<sup>48</sup> 일상적이고 비격식적인 이 표현은 노력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는 국제정치 현실의 장벽에 부딪혀 한계를 느끼는 무력감의 토로이며, 전능한 지도자가 아니라 대화와 설득을 반복해야 하는 인간적 협상가로서의 고뇌를 반영한다. 결국, 김정은의 읍소 전략은 체제의 구조적 한계와 국제적 고립이라는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자신의 인간적 취약성을 새로운 형태의 통치력으로 승화시키려는 고

<sup>45</sup> 2020년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도 ‘나라를 위한 자신의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낀다’라며 눈물을 흘렸다. 중앙일보, 2022. 8. 11., “김정은 코로나 걸렸었나… 김여정 ‘원수님, 고열 심하게 앓았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1127784>(검색일: 2026. 1. 15.).

<sup>46</sup> 2022년 8월 10일 전국비상방역 총화 회의에서 김여정은 ‘방역 전쟁의 나날 고열 속에 심히 앓으시면서도 자신이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인민들 생각으로 한순간도 자리에 누우실 수 없었던 원수님’이라고 언급했다. 중앙일보, 2017. 1. 16. “北 김정은 자책에 주민은 ‘눈물의 참회’”, <https://www.joongang.co.kr/article/21127784>(검색일: 2026. 1. 7.).

<sup>47</sup> 유학에서 돌아온 17세 김정은은 일본의 전후 복구와 중국의 본보기로 삼아 “우리나라도 저렇게 되어야 할 텐데”라고 말했다. 후지모토 겐지, 2010, pp. 162-163.

<sup>48</sup> 경향신문, 2026. 1. 18., “김정은, 남측에 ‘비인간적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아’ 미국에 불만”, <https://v.daum.net/v/20260118165103927>(검색일: 2026. 1. 16.).

립된 지도자의 필연적 생존 방식이다.

### 3. 압살(壓殺)에 의한 공동체의 통증과 비명

#### 1) 눈물, 그 고독과 억압의 분출

김정은의 눈물은 지도자의 인간적 취약성을 노출함으로써 인민으로 하여금 국가경영의 실패가 아닌 고뇌하는 가장(家長)의 모습을 보게 만든다. 지도자의 공개적이고 지속적인 눈물은 북한 정치사에서 전례 없는 현상이다.<sup>49</sup> 지도자가 인민의 아픔을 체감한다는 서사를 통해, 인민은 자신들의 고통이 지도자의 고뇌와 연결되어 있다는 착시를 경험하며 체제에 대한 저항 대신 정서적 연민을 선택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인민의 억압된 삶과 하나의 운명적 동체(同體)로 결속시키며, 수령의 권위가 피통치자와 감성적 일체화 단계로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2024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이후 노출된 김정은의 비장한 모습은 후발국 지도자가 겪는 실존적 굴욕과 체제생존의 절박함을 집약한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군인은 1만 명을 넘고 사망자는 2,000여 명에 달한다고 알려졌다.<sup>50</sup> 북한의 조선중앙TV는 2025년 6월 30일 오후 김정은이 인공기로 감싼 러시아 파병 북한군 전사자의 유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먹이는 장면을 공개했다.<sup>51</sup> 전사자의 관에 손을 얹고 고통을 참아내는 지도자의 서사는 1964년 박정희가 서독에 파견된 광부들 앞에서 흘렸던 눈물과 구조적 평행을 이룬다. ‘함보른 탄광의 눈물’로 알려진 박정희의 눈물이 자국 청년들의 희생을 담보로 경제적 지원을 구걸하다시피 해야 했던 빈곤 국가 지도자의 굴욕적 서글픔이었다면, 김정은의 눈물은 체제생존을 위해 군인들을 타국의 전장으로 보내야 하는 지도

<sup>49</sup> 2011년 김정일 장례식에서 시작하여 2012년 음악회, 2014년 수산사업소 방문, 2020년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식, 2021년 국기계양식, 2023년 정전협정 70주년 열병식, 전국어머니대회에 이르기까지 그는 반복적으로 눈물을 보였다. 중앙일보, 2023. 7. 31., “北 김정은 눈 감고 또 눈물… 실제로 자주 운다, 자아도취형”,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81559>(검색일: 2025. 12. 22.).

<sup>50</sup> JTBC, 2025. 12. 14., “러 파병군 위로하며 눈물 흘린 김정은… ‘민심 챙기기’ 행보”,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75176>(검색일: 2026. 1. 27.).

<sup>51</sup> 중앙일보, 2025. 7. 1., “러 파병 승인해놓고… 김정은, 돌아온 유해 앞 무릎 꿇고 울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47933>(검색일: 2026. 1. 19.).

자의 비극적 위무(慰撫)이다. 1960년대 서독의 탄광과 현재 우크라이나 전장은 공간적 격차에도 불구하고, 국가 존립을 위해 인적 자원을 외화와 교환해야 하는 후발국 지도자의 절박한 생존 전략이라는 본질을 공유한다.

절대 고독에 갇힌 지도자와 억압된 인민의 치유되지 못한 고통은 외부로 발산되지 못한 채 내부 압력을 높이는 가압기로 작용한다. 이때 눈물은 임계점에 도달한 공동체가 선택한 안전밸브로 기능한다. 공식 석상에서 지도자가 쏟아내는 눈물은 즉시 집단의 통곡이 되어 공동체가 공유하는 통증의 공명으로 이어진다. 2022년 8월, 코로나19 방역 작전에 투입됐던 군의관들이 김정은을 향해 감정에 북받쳐 흐느끼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은 조선중앙TV를 통해 방영되었다. 이에 대해 언론은 “김정은 등장하면 눈물 ‘뚝뚝’... 북한 주민은 대체 왜 이렇게 우는 걸까요?”(SBS, 2022/08/24)라는 질문을 던지며 호기심을 표했다.

국제적 고립 속에서 극한의 고통을 공유하는 이들에게 지도자의 눈물은 파편화된 개별적 슬픔을 집단적 서사로 치환하는 촉매제로 작용한다. 억압된 인민의 개별적 고통은 지도자의 눈물을 매개로 거대한 사회적 공명으로 전이된다. 지도자가 자신의 한계를 고백하고 오열하는 순간, 인민은 수령의 신성성 뒤에 숨겨진 인간성을 발견한다. 이 지점에서 지도자의 눈물은 인민이 견뎌온 가혹한 생존의 시간에 부여되는 성스러운 인장이자, 공동체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받는 집단적 제의(Ritual)의 정점이라 할 수 있다. 생존을 갈구하는 개인의 고통은 국가적 고난 속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국가적 서사로 승화되며, 체제의 복원력을 구성하는 정서적 기반이 된다.

이는 국가가 동원하는 예술의 언어를 통해 인민에게 내면화된다. 2019년 광복절 74돐 경축 만수대예술단 공연무대에 오른 무용 “혁명절개”(노동신문, 2019/08/16)는 그 전형적 사례다. 항일빨치산으로 표상되는 남성무용수는 손과 발목에 쇠사슬을 찬 채 고문으로 너털너털해진 수의와 온몸에 피멍 든 상태에서 감방 벽에 ‘혁명승리’라는 혈서를 새긴다. 이 무용작품은 공동체의 숨통을 조이는 국제적 제재·군사적 대결·경제위기라는 압제의 사슬을 항일혁명의 정신으로 끊어내자는 당국의 메시지를 함축하고 있다. 한편, 인민의 시각에서 무용수를 결박한 쇠사슬은 굶주림과 권력의 억압으로 해석되며, 그의 처절한 몸짓은 체제가 부과한 고난을 숙명으로 내면화하면서도 그 안에서 존엄을 지키려는 인

민 자신의 자화상으로 전화(轉化)된다.

따라서 지도자의 눈물에 공명하는 인민의 눈물은 충성의 눈물만이 아니다. 장기간 누적된 만성적 굶주림과 결핍에 따른 생존의 위기와 고통, 감시와 통제로 억눌렸던 감정이 분출되는 것이다. 삶과 죽음이 부딪히는 온 나라의 가정마다 아물지 못한 상처가 남았고, 그토록 많이 굶어 보고, 얼어 본 사람들의 눈에는 눈물이 아니라 피가 맺혔으며, 그들의 피와 눈물이 습배인 땅은 ‘짹짹하게 느껴질 정도’이다(로동신문, 2000/10/03).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은 “자다가 죽어서 내일 아침에 깨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고통스럽기에,<sup>52</sup> 그들은 참혹한 현실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 줄 초월적 존재의 출현을 갈구해왔다(오혜선, 2023: 241).

북한 인민은 수십 년간 외부와 단절된 채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며, 고통을 회피하기보다 이를 존재 증명의 방식으로 숙명화해 온 독특한 고난의 주체들이다. 북한 사람들은 어떤 인간이나? 이 질문에 하나의 명제로 요약한다면 ‘고난과 결핍을 숙명화한 인간’이다(김윤희, 2025). 그들은 고난과 결핍을 숙명화하였기에 수십 년간 만성적 결핍과 ‘고난의 행군’이라는 대기근을 견뎌내고 체제의 붕괴를 막아내는 초석이 될 수 있었다. 북한 인민은 체제의 수동적 희생자에 그치지 않고, 고통을 통해 자신의 실존을 증명하며 체제와 내밀하게 호흡하는 능동적 비탄의 주체로 재해석되어야 마땅하다.

본 연구는 눈물의 생물학적 진위보다 소통의 현상학적 맥락에 주목한다. 김정은에 관한 연구가 독재자 프레임에 갇혀 지도자와 인민 사이의 정서적 틈줄을 간과해 온 것과 달리, 이 연구에서는 지도자와 인민 간 눈물의 공명을 파산한 이념을 대신해 체제를 유지시키는 비장한 정서적 에너지로 규정한다. 이는 자발적 충성보다 만성적 억압을 숙명으로 받아들인 자들의 체념 섞인 인내에서 발생하며, 고통을 견디게 하는 비정한 동력이 된다. 지도자의 인간적 고뇌와 인민의 숙명적 비애가 정서적으로 동기화될 때 발생하는 이 자생력이야말로 체제의 물리적 한계를 심리적 연대로 메우는 북한 특유의 비극적 복원 기제라 할 수

<sup>52</sup> BBC, 2023. 6. 15., “북한: 주민들이 BBC에 이웃들이 굶어 죽어 가고 있다고 증언”, <https://www.bbc.com/news/world-asia-65881803>(검색일: 2016. 1. 29.).

있다.

## 2) 소멸의 메커니즘: ‘말려 죽이기’, ‘눌러 죽이기’

지금까지 김정은의 ‘고독한 자아’ 형성 과정을 추적한 결과, 그 고독이 단지 개인의 심리적 결핍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거대한 구조적 폭력에 의해 생산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고독한 자아’로 출발한 분석은 이제 그 고독을 생산하는 구조적 폭력의 메커니즘을 설명할 상위 개념을 필요로 한다. 눈물을 매개로 김정은의 고독과 북한 공동체가 처한 고통의 심연을 대면해야 하는 이 지점에서 그 본질을 관통할 개념을 정립하는 과정은 연구자에게 치열한 고뇌의 시간이었으며, 그 끝에서 도출한 개념이 바로 ‘압살’이다.

‘압살’은 사전적으로 ‘힘으로 짓눌러 상대방의 의지나 활동을 막아버림’을 뜻한다. 본 연구가 정의하는 ‘압살’은 외부로부터의 경제적 봉쇄와 내부로부터의 물리적·심리적 질식이 동시에 작용하여 공동체의 생존 에너지와 실존적 의지를 소멸시키는 총체적 고사(枯死) 상태를 의미한다. 이는 ‘말려 죽이기’와 ‘눌러 죽이기’라는 두 층위에서 동시에 작용한다.

① ‘말려 죽이기’는 국제적 제재와 고립이라는 외부적 압력이 체제의 운영자 원과 영양 공급원을 차단하여, 공동체의 생명력을 점진적으로 고갈시키는 경제적 봉쇄의 과정이다. 경제가 붕괴하고 아사자가 속출하며, 국가의 생존기반이 질식하고 소멸되어 가는 극단의 상태를 의미한다.

② ‘눌러 죽이기’는 감시·통제·억압·공포라는 내부적 압력이 공동체의 숨구멍을 물리적으로 폐쇄함으로써, 어떠한 자생적 의지나 변화의 파동도 일어날 수 없게 짓이기는 심리적·사회적 질식의 과정이다.

③ 이 양단의 압력을 생성하고 지속시키는 구조적 상수는 다름 아닌 분단체제이다. 분단체제는 그 자체로 공동체에 가해지는 거대한 구조적 폭력이며, ‘말려 죽이기’와 ‘눌러 죽이기’ 모두에 개입하면서 체제의 임계점을 형성한다. 분단체제는 지도자의 적대적 세계관을 고착화하고, 흡수통일에 대한 공포는 그를 고립시키며, 막대한 국방비 지출을 강요함으로써 인민의 생존권을 잠식한다. 동시에 체제 내부의 불신을 구조화하고 억압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작용한다.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는 구조에서 인민은 비인간적 삶을 강요당하는 실존적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sup>53</sup> 본 연구는 가해의 주체를 특정 개인에 국한하지 않고 분단체제로 상정함으로써, 북한 문제를 구조적 분석을 넘어 민족사적 지평으로 확장하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서론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김정은은 체제 그 자체이므로 체제와 분리될 수 없고, 북한 인민 또한 김정은과 분리하여 인식하기 어렵다. 이들은 불가분의 관계로 얽혀 있는 사회정치적 생명체다. 따라서 ‘압살’의 개념에는 김정은 개인이 겪는 고독과 고립, 실존적 위기뿐만 아니라, 체제의 감시·통제·억압, 처형과 숙청, 결핍에서 기인하는 모든 비인간적 요소가 포괄된다. ‘압살’은 이러한 이중의 압력이 임계점에 도달하여 공동체의 통증이 눈물로 분출될 수밖에 없는 극단의 수난 상태를 의미한다.

## VI. ‘눈물’로 읽은 독재자와 인간

지금까지 김정은의 눈물을 통해 ‘고독한 자아’의 형성과정과 ‘압살’의 메커니즘을 규명하였다. 이를 통해 지도자의 눈물이 파산한 이념을 대체하는 정서적 통치 기제이자 공동체의 고통을 국가적 서사로 승화시키는 비극적 복원 메커니즘임을 논증하였다.

본 연구는 네 가지 차원에서 학술적 기여를 한다. 첫째, 독재자 연구의 패러다임을 고발에서 이해로 전환하며, 선악의 이분법을 넘어 시스템과 인간의 비극적 변증법을 포착하였다. 둘째, 김정은의 눈물을 독립적인 통치기호로 상정하고 분석함으로써, 기존 연구가 간과한 북한 권력의 정서적 기제를 규명하였다. 셋째, ‘고독한 자아’라는 개념 틀을 통해 수령독재 시스템이 김정은이라는 한 인간의 내면을 파괴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을 미시적으로 추적하였다. 넷째, ‘압살(壓殺)’이라는 새로운 분석 개념을 제시하고 소멸의 메커니즘을 규명하였다. 공동체를

<sup>53</sup> 좋은벗들이 1997년 중국 동북지방에서 탈북난민 1,850명과 진행한 면담자료를 보면 대부분이 식량문제는 통일이 되어야만 해결된다고 생각한다. 1999, 『사람답게 살고 싶소』, pp. 85, 132, 145; 1999, 『두만강을 건너온 사람들』, pp. 79, 80, 100, 113, 127, 128, 157;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도 북한 인민은 통일이 되어야 공장생산이 정상화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김화순, 2023, p. 11.

질식시키는 국제적 제재와 고립(말려 죽이기), 내부의 감시·통제·억압·공포(눌러 죽이기)를 동시에 작동시키는 구조적 상수가 분단체제임을 논증하였다. ‘압살’ 개념은 김정은 개인의 고독과 북한 인민의 고통을 분리 불가능한 하나의 실존적 위기로 통합함으로써, 북한 문제를 구조적 관점을 넘어 민족사적 관점에서 재해석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마련한다.

본 연구는 인간에 대한 증오를 넘어서 이해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여정이었다. 김정은이라는 한 독재자의 극단적 사례를 통해 ‘권력은 인간을 어떻게 파괴하는가?’라는 보편적 질문에 답하고자 하였다. 신으로 추앙받으면서도 정작 인간으로 존재할 수 없는 모순적 비극을 체현하는 김정은의 서사는 독재자 너머의 잃어버린 인간을 발견하고, 시스템이 주조한 희생자를 읽어내는 인간학적 기록이다.

본 연구가 규명한 지도자의 실존적 고립과 도덕적 파열은 단순히 일탈적 행위의 기록이 아니다. 이는 북한 체제가 직면한 근본적인 위기를 드러내는 내부적 징후이며, 향후 국제적 질서의 변화를 예측하는 데서 지도부의 정서적 동학을 반드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핵을 보유한 지도자의 심리적 임계점을 이해하는 것은 한반도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며, 그의 고독을 심화시키는 국제적 고립 전략은 통제 불가능한 폭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를 직시할 때, 김정은의 눈물은 체제 위기의 신호인 동시에 대화의 창(窓)으로 읽힌다.

투고일: 2026년 2월 3일 | 심사일: 2026년 3월 2일 | 게재확정일: 2026년 3월 31일

## 참고문헌

- 강명도. 1995. 『평양은 망명을 꿈꾼다』. 서울: 중앙일보사.
- 김덕홍. 2015. 『나는 자유주의자이다』. 서울: 집사재.
- 김민관·허재영. 2024. “세뇌와 공포’에서 ‘인정과 눈물’로: ‘오류인정’ 사례를 통해 본 김정은 리더십 연구”. 『북한연구학회보』 28(1): 7-44.
- 김승길·김병수. 1985. “내 동생 물음에 대답했지요”. 아동가요.
- 김윤희. 2016. “영생하는 수령과 그리움의 정치: 김일성에 대한 집단적 유희전개 과정을

-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56(2): 207-251.
- \_\_\_\_\_. 2025. 『‘북조선’형 인간의 형성과 변형: 집단적 주체에서 개체적 주체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희순. 2023. “공장의 나날들”. 『북한 주민의 직장생활』, 통일연구원.
- 노동신문. 2000. 10. 3, 2013. 12. 12. 평양: 노동신문사.
- 류현우. 2025. 『김정은의 숨겨진 비밀금고』, 서울: 동아일보사.
- 성혜량. 2000. 『등나무집』, 서울: 세계를 간다.
- 스테판 티처 외. 2015. 『텍스트와 담론분석방법』, 남상백 옮김. 서울: 경진출판사.
- 오혜선. 2023. 『런던에서 온 평양 여자』, 서울: 더미라클.
- 와다 하루키. 2002. 『북조선: 유격대국가에서 정규국가로』, 남기정·서동만 역. 서울: 돌베개.
- 이한영. 1996. 『대동강로열패밀리』, 서울: 동아일보사.
- 조선기록영화. 2022. 『태양의 가장 가까이에서』, 평양: 조선기록과학영화촬영소.
- 좋은벗들. 1999. 『사람답게 살고 싶소』, 서울: 정토출판.
- \_\_\_\_\_. 1999. 『두만강을 건너온 사람들』, 서울: 정토출판.
- 후지모토 겐지. 2010. 『북한의 후계자: 왜 김정은인가?』, 한유희 옮김. 서울: 맥스미디어.
- 황장엽. 2006. 『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 서울: 시대정신.
- Geertz, Clifford. 1973.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s: Selected Essays*. New York: Basic Books(문옥표 역. 2009. 『문화의 해석』, 서울: 까치글방).

## 인터넷 기사

- 경향신문. 2011. 1. 18., “아버지 김정일도 3대 세습은 반대했다’… 김정남 日 인터뷰서”, <https://www.khan.co.kr/article/201101281116441/amp>(검색일: 2026. 1. 9.).
- \_\_\_\_\_. 2026. 1. 18., “김정은, 남측에 ‘비인간적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아’, 미국에 불만”, <https://v.daum.net/v/20260118165103927>(검색일: 2025. 12. 19.).
- \_\_\_\_\_. 2014. 6. 7., “北 김정은, 만경대혁명학원서 ‘눈물’ 보여”, <https://www.khan.co.kr/article/201406070902241>(검색일: 2026. 1. 3.).
- 국민일보. 2023. 2. 20., “심상찮은 북(北)… 일부 지역서 아사자 속출, 식량난 심각”,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977109>(검색일: 2026. 1. 22.).
- 뉴스1. 2017. 1. 16., “北 김정은 신년사 자책 구절에 ‘수해’ 주민들도 자아 비판”, <https://www.news1.kr/diplomacy/unikorea/2886913>(검색일: 2026. 1. 7.).

- 동아일보. 2026. 1. 6., “김정은·주에 ‘불 뽀뽀’… 과도한 스킨십, 체제 왜곡 불안 드러내”,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60106/133102971/2>(검색일: 2025. 12. 15.).
- 신동아. 2026. 1. 27., “마두로 체포로 무너진 국제질서, 한반도가 위험하다”, <https://shindonga.donga.com/inter/article/all/13/6076726/1>(검색일: 2026. 1. 29.).
- 연합뉴스. 2026. 1. 19., “北, 계급교양관에 ‘헌법 3조’ 적어놓고 ‘한국은 제1적대국’”, <https://www.yna.co.kr/view/AKR20260119068600504>(검색일: 2026. 1. 20.).
- 조선일보. 2024. 8. 23., “[단독] 엘리트 탈북, 김정은 때 2.5배로 급증”, [https://www.chosun.com/politics/north\\_korea/2024/08/22/2CIORMJPHZF2LCIHGA67Y7G4H4/](https://www.chosun.com/politics/north_korea/2024/08/22/2CIORMJPHZF2LCIHGA67Y7G4H4/)(검색일: 2025. 12. 16.).
- 중앙일보. 2017. 1. 16., “北 김정은 자책에 주민은 ‘눈물의 참회’”, <https://www.joongang.co.kr/article/21127784>(검색일: 2026. 1. 7.).
- \_\_\_\_\_. 2022. 8. 11., “김정은 코로나 걸렸었나… 김여정 ‘원수님, 고열 심하게 앓았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1127784>(검색일: 2026. 1. 15.).
- \_\_\_\_\_. 2023. 7. 31., “北 김정은 눈 감고 또 눈물… 실제로 자주 우나, 자아도취형”,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81559>(검색일: 2025. 12. 22.).
- \_\_\_\_\_. 2024. 6. 5., ““고용희 담긴 기록물 없애라”… 김정은 생모 지우기 나선 北”,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54270>(검색일: 2026. 1. 25.).
- \_\_\_\_\_. 2025. 7. 1., “러 파병 승인해놓고… 김정은, 돌아온 유해 앞 무릎 꿇고 울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47933>(검색일: 2026. 1. 19.).
- \_\_\_\_\_. 2026. 7. 6., “北 김정은, 1년 전 ‘버럭’했던 자라공장에서 파안대소한 까닭”, <https://www.joongang.co.kr/article/20268344>(검색일: 2025. 12. 23.).
- 채널 A. 2025. 2. 10., “북한 엘리트 외교관 이일규의 망명을 위한 쿠바 탈출기”(이만갑 684회), <https://www.youtube.com/watch?v=aPSNQFJTUKU>(검색일: 2026. 2. 7.).
- BBC. 2023. 6. 15., “북한 내부 주민과의 BBC 독점 비밀 인터뷰 ‘식량 부족해 이웃들 굶어 죽어’”,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n3e4v9lmvro>(검색일: 2025. 12. 28.).
- JTBC. 2025. 12. 14., “러 파병군 위로하며 눈물 흘린 김정은… ‘민심 챙기기’ 행보”,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75176>(검색일: 2026. 1. 27.).
- KBS뉴스. 2012. 1. 7., “[클로즈업 북한] 첫 공개활동, 류경수105뱅크 사단은?”,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2416166>(검색일: 2026. 1. 25.).

- KBS. 2024. 4. 20., “할아버지와 찍은 사진 한 장 없던 김정은… 코스프레 벗어나 홀로서기[北 뉴스]”, <https://v.daum.net/v/1y3Vjaiyh>(검색일: 2026. 3. 3.).
- SBS. 2022. 8. 24., “김정은 등장하면 눈물 ‘뚝뚝’… 북한 주민은 대체 왜 이렇게 우는 걸까요?”, [https://www.youtube.com/watch?v=liA\\_ijYoCso](https://www.youtube.com/watch?v=liA_ijYoCso)(검색일: 2026. 1. 31.).
- \_\_\_\_\_. 2024. 9. 30., “북한 군부 1인자가 줄지에 마당 쓰는 신세로… 간부들 벌벌 떨게 한 사건”,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812202&link=COPYPASTE&cooper=SBSNEWSSEND](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812202&link=COPYPASTE&cooper=SBSNEWSSEND)(검색일: 2026. 1. 3.).
- \_\_\_\_\_. 2026. 2. 1., “‘더 늦기 전에 네발로 나가’ 공개 질타한 김정은… ‘즉각 처형’ 탄광까지 뛰는 간부들”, <https://www.youtube.com/watch?v=Fq3R8080VPE>(검색일: 2026. 2. 20.).
- supersuhui, 2026. 3. 9., “3.8 국제부녀절 기념공연 성황리에 진행”, [https://www.youtube.com/watch?v=oSru4V8k\\_n0](https://www.youtube.com/watch?v=oSru4V8k_n0)(검색일: 2026. 3. 9.).
- VOA. 2015. 4. 14., “북 매체들 ‘태양절’ 특집… 김일성·김정은 동반 사진은 없어”, <https://www.voakorea.com/a/2718532.html>(검색일: 2026. 3. 3.).
- YTN. 2015. 7. 30., “北 ‘빨치산 혈통’ 황순희, 김정은에 ‘엄지 척’”, <https://www.youtube.com/watch?v=z3SQbKTLAqg>(검색일: 2026. 1. 29.).
- Shoaib, A. (2023, December 5).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Un wept as he pleaded with women to have more babies to stop the country’s falling birth rate. Business Insider.” <https://www.businessinsider.com/kim-jong-un-weep-as-he-pleads-north-korean-women-to-have-more-babies-2023-12>(검색일: 2025. 12. 29.).

## Abstract

## Why Does Absolute Ruler Kim Jong-un Cry So Often?: Existential Crisis and Emotional Dynamics of an Isolated Being

Yun Hee Kim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redefines Kim Jong-un's tears—which the media has highlighted and consumed yet academia has either dismissed or failed to establish as an independent object of analysis—as an independent governing signifier, and comprehensively examines both the leader's existential crises and the structural suffering of the community. Just as the saying goes, 'the entire universe is reflected in a single drop of water,' the researcher discovers the mechanism of the "solitary self" and suffocation (apsal 壓殺) in Kim Jong-un's tears. This study reinterprets Kim Jong-un's tears not as a deliberate power strategy or an expression of narcissism but as an existential symptom erupting at the threshold of solitude and crisis, and introduces the concept of the "solitary self" as an analytical framework in which to comprehend this phenomenon. Furthermore, it defines suffocation (apsal 壓殺) as the essence of structural violence that penetrates Kim Jong-un's solitude and tears, and the tears of the people that resonate with them.

Kim Jong-un's "solitary self" is shaped through the interaction of multiple structural, political, and biographical factors. First, his concealed birth and absence of peer relationships resulted in relational poverty and deformed socialization. Second, the vulnerability of his maternal bloodline and the absence of legitimacy as 'an existence unknown to Kim Il-sung' inscribed

the structural fragility of the Paektu bloodline hereditary system and led to obsessive authority-seeking. Third, the deification process within the Suryeong dictatorship system replaced the human Kim Jong-un with the dictator Kim Jong-un, causing personality alienation. Fourth, the destruction of human bonds through purges paradoxically transformed family into his sole emotional refuge, functioning as the mechanism of family politics. Fifth, as international sanctions and isolation caused the simultaneous collapse of survival foundations for both state and people, the community faced suffocation (*apsal* 壓殺). Suffocation is a form of structural violence in which external suffocation ('drying to death') through international sanctions and isolation and internal suffocation ('crushing to death') through surveillance, control, oppression, and fear operate simultaneously within the structure of the division system, driving the entire community into a state of total withering (*gosa* 枯死). This structurally deepened Kim Jong-un's solitude.

Kim Jong-un's tears signify both a moment of human rupture at the limits of structural isolation and a new mode of affective politics through which a regime that has lost the universal material redistribution function of the Kim Il-sung era seeks emotional resonance with the populace. Tears shed by the leader in official settings instantly become a collective lamentation, reverberating as shared communal pain, through which individual suffering under international isolation and systemic oppression is sublimated into a national narrative. In this sense, the leader's tears function as a sacred seal bestowed upon the people's harsh time of survival, and as the culmination of a collective ritual through which the community confirms that its sacrifices have not been in vain. This study defines the resonance of tears between leader and people as both an affective energy that sustains the regime in place of a bankrupt ideology, and as North Korea's distinctive tragic mechanism of restoration that fills the regime's material limits with psychological solidarity.

This study treats the dictator not as an object of moral condemnation but instead applies an analytical understanding. His contradiction-being compelled to forfeit his humanity through deification-exposes the mechanism by which political systems consume the individual. In this sense, the question is not merely how humans wield power but how power alienates the human subject.

**Keywords** | Solitary Self, Suffocation (Apsal 壓殺), Isolation, Division, Suryeong Dictatorship, Purge, Tears, Affective Politics

